

PDF자료집

주체90(2001)년

러시아 5만리





6.15주간 편집부

러시아 5만리

6.15주간 편집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주체 90(2001)년 7월24일

이타르-타스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러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러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불라디미르 불라디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이 러시아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조러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불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호상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러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조러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러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 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 속에서는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서로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러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사이,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푸틴대통령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러시아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면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 조러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 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사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맺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 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그로 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사일강령은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 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사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 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 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 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 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 둔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러시아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러시아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 뿌찐대통령에게 감사전문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에게 18일 감사전문을 보내시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귀국을 떠나면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여 준데 대하여 당신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태평양연안의 국경마을 하싼에서부터 서북단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로씨야의 전 령토구간에서 우리를 성의껏 맞이해 준 로씨야정부와 련방구들의 대통령전권대표들, 우리가 체류하거나 통과한 주와 시의 행정장관들, 친근한 로씨야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우리들의 이번 만남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 져 온 오래고도 긴밀한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이번 우리들사이에 합의된 정신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와 함께 로씨야인민들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연방대통령이신 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며 2001년 7월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4일과 5일 공식 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러 친선관계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의의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륜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정 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19일에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서명한 조-러 공동선언과 2000년 2월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재에서의 과거문제들을 보도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이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 연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 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공식관계 설정이 적극화되고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같은 나라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 기간 러시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대통령 푸틴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러시아연방대통령 푸틴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김정일국방위원장 연설전문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각하, 러시아의 벗들, 나는 푸틴대통령께서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훌륭한 연설을 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선 조,로 친선의 밝은 전망을 안고 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하여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애국적인 열정에 넘쳐있는 귀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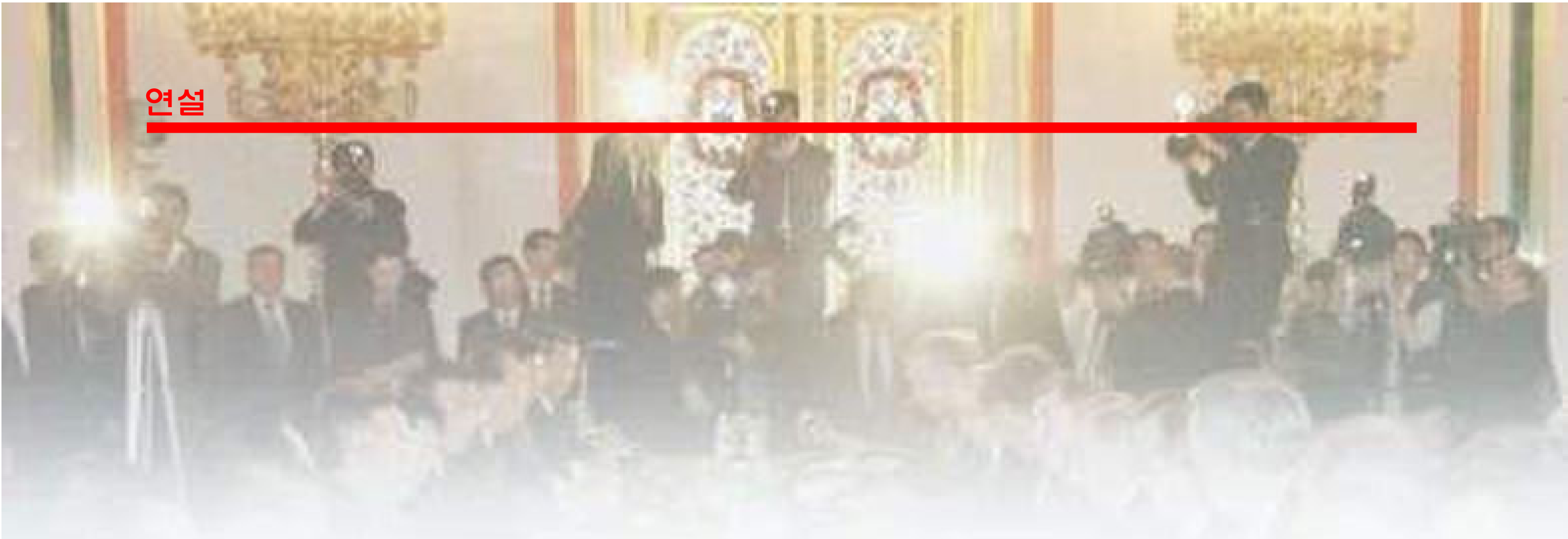
오늘 러시아연방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국제관계 전반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한 자기의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정력적인 노력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커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푸틴대통령 각하가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다지고 사회정치적안정과 민족적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영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귀국인민이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 친선을 세기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희망찬 새 세기에도 조,로 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새 세기의 뜻 깊은 첫 해에 여기 모스크바에서 가지게 되는 푸틴대통령과의 상봉이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를 보다 긴밀히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로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푸틴대통령 연설전문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조선의 손님들,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로씨야(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크레믈리(크렘린)에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진심으로부터 환영하는 바입니다.

1984년과 1986년에 바로 이 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을 환영하는 연회들이 진행된 것은 상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을 것이며 우리들 사이에 솔직하고 보람있는 정치적 대화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랜 조선속담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사람들과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새 시대와 우선권들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선린과 다방면적인 협조의 오래고 변함 없는 전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더 귀중합니다.

이 전통들은 세월의 시련을 이겨내며 조선의 독립국가 창건시기에 공고화되고 나라의 전후복구 기간에 풍부화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통들이 1년반 전에 조인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바탕으로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건은 호상(상호) 존중과 창조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로,조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확인하고 우리들 사이의 합작을 심화시키기 위한 주되는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통된 태도를 확인하는 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의 협정의 보물고를 보충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공정하고 안전한 국제관계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협력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문제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목표 및 원칙과 상통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로,조협조의 관건적 문제의 하나는 무역경제 연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두 나라의 이웃들도 참가하는 협동을 포함한 경제적협동은 큰 재정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를 건전하게 하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도, 대한민국하고도 다양한 실속있는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조선민족과 지역 전체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믿습니다.

호상 노력의 중요한 결과로, 북남조선 지도부의 지혜와 정치적 책임성의 표현으로 된 것은 지난해 여름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상봉입니다.

우리는 화해, 협조 및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취한 이 결단성 있는 조치를 환영합니다.

귀국땅에서 강구된, 쉽지 않지만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들은 북남공동선언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사람들과 염원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조선민족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바 그것은 곧 전체 조선인민의 번영과 지역의 평화 및 화해의 정착, 국제안전의 공고화입니다.

존경하는 벗들, 우리는 우리들 사이의 오늘 상봉을 지난해 여름에 평양에서 시작된 대화의 논리적인 계속으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호상 신뢰의 정신, 호상 이해를 심화하려는 공통된 마음 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당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행복과 성과와 편안함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전통적으로 친선적인 로,조관계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여기에 참석 모든 조선손님과 러시아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씨야련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 웨.웨.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2001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고 6일과 7일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으며 7월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로씨야에 체류하시였다.

웨.웨.뿌찐대통령은 **김정일**령도자를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으며 로씨야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웨.웨.뿌찐대통령과 두차례의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회담을 하시였으며 대통령전권대표들과 주장관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지도일군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서로의 성과와 경험이 통보되고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국제정세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두 나라의 령도자들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조로친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조인된 조로공동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웨.뿌찐대통령은 고대하던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방문이 새 세기의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의 호상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되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특히 조선반도북남과 로씨야, 유럽을 련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과 로씨야철도련결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훌륭한 결실을 보았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새 세기에 쌍방의 공동노력으로 세계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웨.뿌찐대통령은 모스크바체류를 끝내시는 **김정일**령도자와 또다시 비공식상봉을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번 웨.웨.뿌찐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상봉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시고 6일과 7일 영웅도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서북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웨.웨.체르께쏘브,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장 웨.아.야꼬블레브, 레닌그라드군관구 사령관 웨.에쓰.보브리쉐브, 부시장 겸 대외련계위원회 위원장 게.이.뜨까체브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일군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웨.아.야꼬블레브시장을 비롯한 시의 지도일군들을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고 시장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문기간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 있는 삐스까료브묘지의 갼어머니-조국갼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에르미따쥬박물관과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를 비롯한 력사유적들, 레닌그라드금속공장과 끼로브공장 등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랜 력사와 문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를 참관하시고 로씨야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훌륭히 고수하고 빛내이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마리인스끼극장에서 발레극 ≪씰피다≫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공식방문과 싼크뜨-뻬쩨르부르그비공식방문을 위하여 오가시는 길에 로씨야의 여러 지방들에 체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의 전 령토를 통과하시는 전 기간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베.뿔리꼽스끼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대통령행정부와 외무성의 지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로 가시던 길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로씨야의 중요공업도시의 하나인 옴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역에서 씨비리련방구주재 대통령 전권대표 엘.웨.드라체스끼, 옴스크주행정장관 엘.까.뽈레쟈예브, 옴스크주 립법회의 의장 웨.아.와르납스끼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옴스크주행정장관을 위시한 주와 시의 지도일군들의 동행하에 땅크를 비롯한 현대적인 뜨락또르를 생산하는 옴스크운수기계제작공장과 농업종합체 ≪옴스끼 베꼰≫, 뿌슈낀명칭 옴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시였으며 주행정장관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고 주예술인들이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11일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1984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모시였던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노보씨비르스크시민들은 각별한 친근감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씨비리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엘.웨.드라첸스끼,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아.똘로꼰스끼, 주대의원의회 의장 웨.웨.레오노브, 노보씨비르스크시장 웨.에프.고로제쯔끼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있는 로씨야과학원 씨비리분원,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련합체, 씨비리국립철도종합대학을 참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많은 전투기들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금은 여러가지 최신식비행기들을 설계제작하고 있는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련합체를 돌아보신 다음 비행시위를 관람하시고 비행시위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만나시여 축하해 주시였다.

이날 저녁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아.똘로꼰스끼는 **김정일**령도자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8월 15일 광복 56돐을 맞으며 뿌찐대통령은 로씨야련방에 체류중인 **김정일**령도자께 축전을 보내여 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7일 원동련방구의 소재지 하바롭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하바롭스크변강과 시의 지도일군들, 하바롭스크시민들은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고 귀국하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이께서는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다음 향토박물관과 로병회관, 어린이식품종합공장, 백화점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변강의 지도일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무르강을 유람하시면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로씨야 체류기간 전 쏘련원수 데.떼.야조브, 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웨.웨.크류츠꼬브,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제.우말라또바,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웨.웨.까르뽀브를 비롯한 개별인사들이 **김정일**령도자를 찾아 뵙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였으며 장군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과 체류는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관심과 환대, 로씨야인민의 열렬한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국경을 넘으면서 로씨야련방 웨.웨.뿌찐대통령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여 전문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진행하신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전통적인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로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로씨야공식방문을 끝마치신것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 8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신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보도가 발표되였다.
공동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8월 18일 조국에 돌아 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여일간 무려 5만여리에 달하는 먼 길을 오가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였으며 웨.웨.뿌찐대통령과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고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심으로써 조로친선관계사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이번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은 웨.웨.뿌찐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속에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 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웨.웨.뿌찐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이 높은 존경과 친근감, 두터운 신뢰의 정을 가지고 **김정일**령도자를 가장 열렬히 맞이하고 성의껏 환대하여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전통적인 조로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로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구국전선 주체 90, 8월 1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7월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시었으며 8월4일과 5일 모스크바를 공식방문하시었다.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하신 **김정일**장군님을 푸틴대통령이 크렘린궁전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었다.

8월4일 **김정일**장군님과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전에서 있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세를 호상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크렘린궁전에서 조러모스크바선언조인식이 진행되었다.

조인식에서 **김정일**장군님과 푸틴대통령이 선언문에 각각 수표를 하시었다.

같은 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와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었다.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은 4일 저녁 크렘린궁전에서 **김정일**장군님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서는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김정일**장군님께서 연설을 하시었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월 5일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센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센터를 참관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기업소 총지배인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주요 생산공정들과 조종공정들을 돌아보시었다.

뒤이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크렘린에 있는 역사문화유적들을 돌아 보시었다.

이날 저녁 크렘린궁전에서는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크렘린대통령악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꽃바구니를 전하시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체류가 끝남에 따라 8월8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과 비공식상봉을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푸틴대통령께서 특별한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다.





자주정치는 이북 특유의 정치방식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4일~6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요, 지난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저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발표하셨는데요. 저서는 발표되자마자 광범위한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서에는 조러 두나라사이의 관계문제를 비롯해서 일련의 국제관계문제들에 대한 이북정부의 확고부동한 자주적인 입장과 태도가 명백히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주정치는 이북특유의 정치방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의 광범위한 민중들은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정상에 이르게 한 이북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 일 : 그렇죠. 온 세상이 모두가 격찬해 마지않고 있는 이북의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 나라의 대외적권위는 영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북민중은 자주정치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 영도자님을 영도의 중심에 높이 모신 것으로 해서 존엄높은 민중으로 되었고 자기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주강국, 정치대국으로 그 위상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자주정치, 자주외교를 펼쳐나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의 위대성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위인은 역사를 세우고 시대를 이끈다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세계 진보적인류는 20세기 90년대를 전후한 시기, 이북의 현실을 주시해오면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니신 위인적품격과 그분께서 펼치신 자주정치의 견인력과 활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오 일 : 네, 그렇죠. 돌이켜보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가 연이어 붕괴된 것을 기화로해서 이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했어요? 1993년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강제적인 사찰과 제재를 제창해 나설 때 세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했고 이북이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과연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겠느냐고 심심한 우려를 표시했잖아요.

사회자 :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회유기만술책앞에서 꺾이면 꺾이울지언정 굽혀들지 않는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펼치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모르고 하는 우려였던거죠.

오 일 : 그분께서는 그때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셨고 그로부터 4일만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이 중대소식에 접한 세계는 놀라움과 찬탄으로 들끓었고 어떻게 크지 않는 나라가, 그것도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단신으로 세계유일초대국에 땅땅 맞설수 있는가고 놀라움을 표시했던거죠. 이북의 청천벽력같은 대응에 기겁한 미국은 군사적, 강압적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3개월만에 적대관계에 있던 이북정부와 미합중국은 정부급대표단의 협상탁에 마주앉게 되었고 여기에서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된 사실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거죠. 이것은 온 세계를 놀라게한 쾌거였던 겁니다.

사회자 : 그럼요. 그야말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신 자주정치, 자주외교의 위대한 승리였고 화를 복으로 급변시킨 북미회담이라는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던거죠.

오 일 : 네, 그래요. 미합중국 클린턴전대통령은 이북의 정치지도자 **김정일**영도자님께 담보서한까지 보내왔는데요. 이건 세계 정치, 군사, 외교사에서 극치를 이룬 사변이 아닐수 없었죠. 참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고립압살책동하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해나가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자주정치와 탁월한 영도가 가져온 위대한 승리였다고 봅니다.

사회자 :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그런 자주정치는 이번에 그분께서 발표하신 저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에 있은 푸틴러시아대통령의 평양방문은 자주정치를 펴나가는 이북의 대외적권위를 과시한 또하나의 커다란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하겠죠.

오 일 : 네, 아시다시피 이북은 영토나 인구수에 있어서 크지않은 나라이지만 자주정치를 펴나가고 있는 것으로해서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고 시대의 앞장에서 전진하고 있고 국제관계와 국제문제취급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건 이번 저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지난해 7월에 있은 푸틴대통령이 러시아국가수반으로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것이 두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새로운 계기로 되었다는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채택된 조러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지금 두나라사이에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상호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친선협조관계가 강화발전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북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있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이북특유의 정치방식인 자주정치로 발현되는 확고부동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번에 저서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관해 천명하신 입장과 태도에서도 잘알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 일 :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이북을 비롯한 일부나라들에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구실로 삼아 러시아와 맺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괴하려고 꾀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시도는 오늘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광범위한 민중들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서에서 미국이 이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고 그것은 저들의 지배주의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북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통해서 전략적안전을 유지할 것을 바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언명하셨고 이북의 미사일강령은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 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미사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이북의 당당한 자주적권리라고 단호히 천명하셨던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뿐아니죠. 이북의 확고부동한 자주정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이북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 있잖아요.

오 일 : 그래요. 오늘 부시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북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같은 고립압살책동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이죠.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북의 변함없는 자주적입장인데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서에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이북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정말 자주정치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자주적이고 확고부동한 이북의 대외관계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금언이라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오일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정상에 이르게 하시는 **김정일**영도자님과 같으신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건 온 겨레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가 아닐수 없죠. 그건 바로 자주정치를 펼치는 여기에 민족의 내일이 있고 나라가 융성번영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주정치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안고 조국통일성업에 더욱 힘차게 매진해야 할줄 압니다.



위인과 취미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0일~11일

이따르타스와의 회견에서 공개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취미, 우리 민중을 무척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현규씨 모시고 그에 대한 애기 듣기로 하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오늘 우리 민중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존경하면서 그분의 위인상을 화제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네, 매우 바람직한 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 7월 24일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자신에게는 해야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김일성**주석님의 생전의 뜻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도 실현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시간을 낭비할수 없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취미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신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 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자 : 정치가들을 보면 말이죠, 사냥이라든가 낚시질, 그리고 테니스같은 것을 비롯해서 체육오락이 아니면 유흥을 취미로 하는 것이 예상사라고 하겠는데요.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중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신다니 이거야말로 **김정일**장군님은 뭍정치인들과는 차원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라는 걸 잘 알수있다고 봅니다.
김현규 : 경애하는 장군님의 취미는 **김일성**주석님의 취미 그대로이지요.
사회자 : 그렇죠. 그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언제나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온갖 노고를 다바치셨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중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십니다. 장군님께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관계없이 동서남북, 나라의 방방곡곡 민중들과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는 그들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돌봐주십니다. 그분께서 현지지도의 길위에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차안에서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하십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새집들이 하는 민중들을 만나시면 친부모가 되시어 새집들이를 축하해 주시며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하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민중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노고를 다바치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앞에 민중들은 뜨거운 것을 삼키며 충성과 헌신을 맹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정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지키고 민중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참으로 많은 노고와 심혈을 바치셨어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민중을 찾아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않으시고 토지정리 및 **에서 닭공장, 양어장으로 이렇게 온 한해동안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셨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장군님께서 오로지 민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깡그리 바치신다는 건 그분께서 자신의 생신날마저도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평범한 날보다 오히려 생신날에는 더 정력적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답니다. 지금까지 생신날 거의 전부를 현지지도의 길에서 맞으셨습니다.
사회자 :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죠. 그럼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서 장군님께서 좋아하시는 책읽기와 음악에 대해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현규 : 그러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유년시절부터 책읽기를 무척 즐기셨는데요. 유치원시절부터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셨고 일단 손에 대신 책은 밤이 열이돼도 끝까지 보시고서야 놓곤 하셨답니다. 중학교시절부터는 연간 수천권의 독서계획을 손수 세우시고 꾸준히 독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시절에 벌써 ≪역사적유물론≫, ≪변증법적유물론이란 무엇인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자본론≫, ≪통일이데올로기≫ 등 철학과 경제학서적들, ≪중공업발전 및 국가전기화≫, ≪실용기계수첩≫, ≪축산편람≫, ≪금속재료≫, ≪오늘과 내일의 과학기술≫ 등 자연과학기술 전문 과목서적들도 다 읽으셨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더욱더 책읽기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대학기간에 **김일성**주석님의 저작들을 비롯해서 모든 책들을 완전히 독파하시기 위해 연간 높은 독서목표를 세우시고 책읽기에 정렬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졸업하실때에는 보시지 못한 책이 별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자 :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거죠. 그런데 말이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단 손에 책을 드시면 온 정신력을 그 책에 집중하시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장군님께서는 어떻게나 정력적으로 사색을 하시며 독서하시는지 곁에서 어떤일이 벌어져도 모르시는데요.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 독서를 시작하셨는데 얼마 안있어 밖에서 우뢰가 요란히 울면서 소낙비가 억수로 내렸답니다. 비가 멎은 후 장군님께서는 책을 놓으시면서 아니, 언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는가고 물으시며 몹시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장군님께서 비가 내리는 모르시고 책을 보셨다는 걸 알고는 장군님의 깊은 독서력에 대해 다시금 경탄하셨답니다.

사회자 : 장군님께서는 그렇듯 정력적으로 독서하시기에 한번 읽으신 책은 그 언제가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현규 : 네, 장군님께서는 독서를 많이 하실뿐 아니라 정력적으로 하셨기에 대학시절에 벌써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지위와 역할문제, 국가와 정권의 호상관계문제, 민족의 기본징표문제, 현대제국주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문제, 전쟁의 성격에 관한 문제, 현대수정주의특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문학예술에서의 수령형상문제 등을 비롯해서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회자 : 음악과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노래, 음악을 대단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답니다. 그분께서는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듣기를 좋아하실뿐 아니라 몸소 가사도 쓰시고 작곡도 하시는데요. 이북민중들속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만해도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 ≪나의 어머니≫, ≪대동강의 소나기≫, ≪조선아 너를 빛내리≫, ≪충성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 여러편이나 됩니다.

사회자 :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그 설날에는 몸소 동료들과 함께 설맞이 노래모임을 준비하셔서 **김일성**주석님을 기쁘게 해드리셨잖아요. ≪축복의 노래≫에는 6.15전쟁시기 아버님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해서 지으신 노래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25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시는 아버님을 그리며 참으로 만사람의 가슴을 숭엄하게 해주는 뜻깊은 노래를 지으셨던 겁니다.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저멀리 하늘가 포연이 가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노래≫ 1절 가사입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뜨거운 존경심과 흠모심, 그리고 안녕을 바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서 이북에서는 세계적인 혁명가극들이 많이 창작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을 훌륭히 완성하시기 위해 노래하나, 가사한구절까지도 손수 고르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세계 가극 또는 문학예술이 발전했다는 나라들에서도 한편의 가극을 창조하는데 몇해씩 걸렸고 어떤 명작은 무려 10년이 걸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피바다≫를 비롯해서 무려 다섯편의 혁명가극을 창조했습니다.

사회자 :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들의 가사 한구절, 음률 하나를 그야말로 불타는 정렬로 옥을 닦듯이 닦고 또 닦으셔서 훌륭히 완성시켜주셨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47편을 선정하시기 위해 2,400여곡,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나오는 노래 38편을 위해서는 2,700여곡, 그리고 혁명가극 ≪한자위단원의 운명≫에 나오는 노래 39편을 위해서는 무려 1만여곡의 노래를 들으시며 모래무지에서 좁쌀을 골라내듯이 선별하시고 다듬어 완성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공력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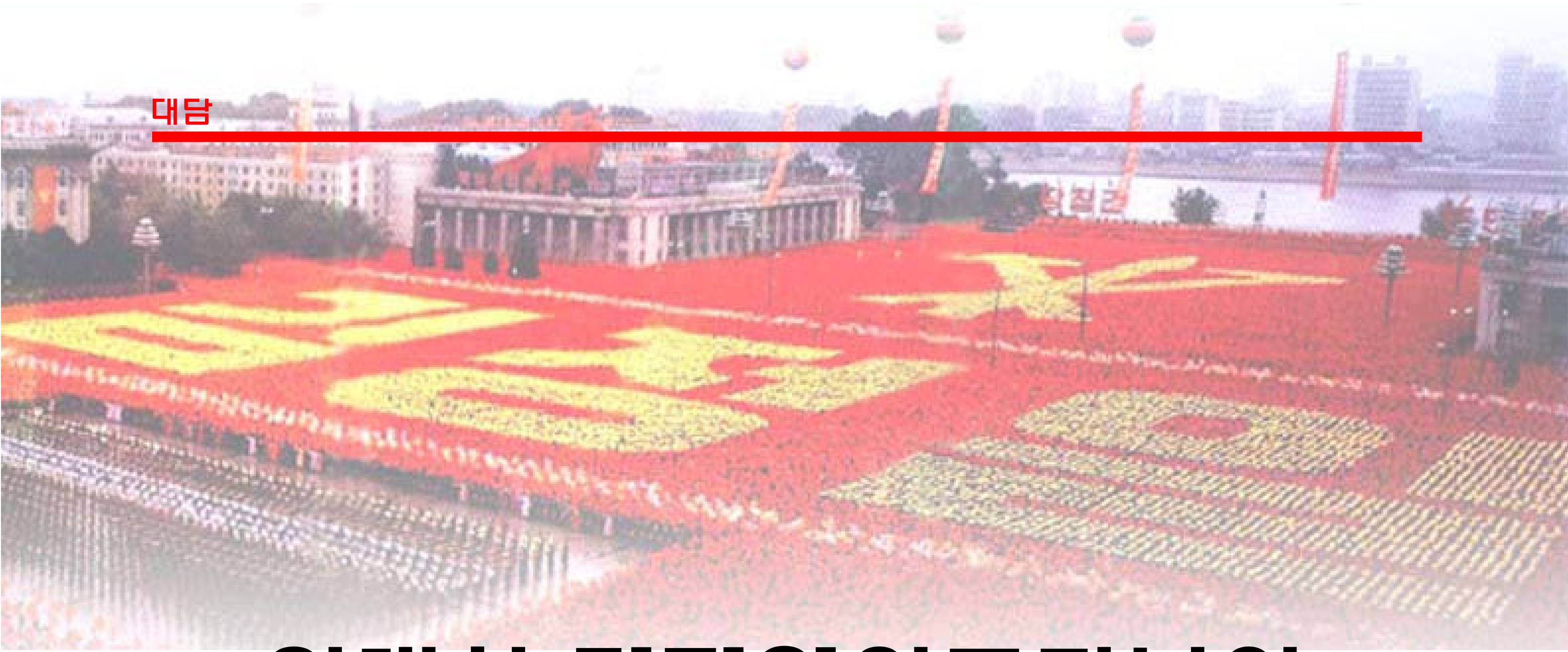
사회자 : 정말 보통생각으로는 엄두도 못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음악을 남달리 사랑하시고 천재적인 음감과 예능을 지니셨기에 ≪음악예술론≫이라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되는 걸작품을 창작하셨습니다.

사회자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취미만을 놓고봐도 그분을 인류사상사에 다시없을 그야말로 절세의 위인, 세계적인 정치가이시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각계민중들은 세계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을 민족의 영수로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모신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6.15공동선언실현투쟁에 너도나도 앞다투어 나서야 할줄 압니다. 김현규씨 참 좋은 얘기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네, 인민, 군인, 책,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 그분의 민중의 어버이로서의 풍모와 함께 다정다감하시고 낭만적인 풍모가 안겨오면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가슴에 차오릅니다. 장군님의 품에서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힘합쳐 마음합쳐 나가야겠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그 의미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1일~12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그 의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위대한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에 관해 개괄해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지난달 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죠. 이기간 푸틴대통령과의 공식상봉과 비공식상봉이 각각 1차,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이 각각 1차, 그리고 영도자님을 환영해 푸틴대통령이 차린 연회가 있었어요.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헌화하셨구요, 5일에는 무명전사묘를 찾으셔서 헌화하셨구요, 그리고 4일 영도자님께서는 푸틴대통령과 함께 크렘린궁에서 역사적인 조러 모스크바선언조인식에 참가하셔서 선언문에 사인하셨지요. 그리고 5일에는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 있는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센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센터를 참관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크렘린에 있는 역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셨구요. 이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위해 크렘린궁에는 유명한 악단의 공연이 있었어요.

사회자 :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러시아방문 의미는 이북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고 21세기의 자주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으로 된다고 보는데요.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는 우선 조러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러친선관계는 참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죠. 조국광복과 함께 이북에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된 이후 당시 사회주의국가였던 소련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여러분야에 걸쳐 친선협조관계가 부단히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된후 조러간의 관계는 우여곡절의 ******겪지않으면 안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조러관계발전을 원치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러시아국내 투항변절자들의 책동때문이었는데요, 그러던게 지난해 여름에 있은 푸틴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지난해 2월에 조인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면서 두나라간의 친선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 발전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번에 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고 역사적인 조러공동선언을 채택하심으로써 조러간의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회자 : 조러친선관계발전에서 4일에 발표된 조러공동선언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공동선언에는 조러친선상호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정치와 대화관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 등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이북과 러시아 두나라 관계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러간의 친선관계가 새로운 수준에서 **적으로 발전할 **를 마련한 것으로해서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조러공동선언에서는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이룩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히 명시했을 뿐 아니라 현 국제사회의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대한 원칙적입장을 밝힘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한데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푸틴대통령과의 회담들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그것이 21세기의 통일이정표가 된다는데 대해 강조하시고 그에 대한 러시아측의 지지를 이끌어 내셨는데요. 조러공동선언에서도 명백히 밝힌것처럼 러시아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는 걸 확언했죠. 이것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나라를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물론 세인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철수투쟁을 국제적차원에서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자 : 저는 이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이 미제를 축으로하는 세계 제국주의열강들에게 된 타격을 주고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민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데 이번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가 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인 냉전체제 붕괴후 더욱 기고만장해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광분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죠. 부시행정부는 미국이 힘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로막으면서 저들은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장간섭과 침략을 통해 ****** 군장비들을 더욱 증강하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어 새 세기에 세계적인 안정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는 원칙과 방도에 대해서 천명하시고 72년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밝히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반대로 세계 평화애호민중들,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봅니다. 이 또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가 있는거죠.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건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영도자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상이 크게 과시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세인들이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일**영도자님은 세계 변혁운동의 탁월한 영수이시고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세계 변혁운동의 탁월한 영수, 21세기 태양으로서 지니신 높은 권위와 위상을 세상에 크게 과시하셨어요. 지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그분의 위대함을 더욱 절감하게 된 세인들은 앞을 다투어 그분을 높이 칭송하고 있죠. 러시아의 저명한 정치인, 학계,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서방나라 사회주의자들도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현세기 탁월한 영수로, 세계를 이끌 유일한 **로,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시라며 우러러 높이 칭송하고 있는건 그걸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우리 민중은 세인들이 그처럼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를 안고 그분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세계의 위대한 정치원로, 21세기의 태양을 보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3~14일



오늘 우리 겨레와 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장군님의 위인상에 탄복해마지 않지 않는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세계의 위대한 정치원로, 21세기의 태양을 보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뉴스와 TV화면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장군님의 금번 러시아방문이 세계를 진감시키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 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세계 그 어느 정치연장자도 정치권위자도 따를수 없는 정치원로, 21세기의 태양이시라는 걸 다시한번 똑똑히 절감하게 되었다며 세계에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그분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잖아요.
김현규 : 네, 러시아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민중들이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표시하는 감동적인 화폭을 대하면서 참으로 가슴부푸는 민족적 자긍심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에서 미국을 향해 핵탄보다 더 위력한 민족자주의 폭탄을 안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세계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위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제왕노릇을 해보려고 악랄하게 나서는 미국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 놓으셨죠.



사회자 :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에 드리웠던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내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이 세계사적사변은 백두산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신 **김정일** 장군님께서만이 이뤄내실수 있는 쾌거죠.

김현규 : 그럼요. 이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이른바 포위작전을 역포위작전으로 바꿔 놓으심으로써 세계에 또한번 **김정일**충격으로 격동시킨 장군님이시야말로 대국들을 다스려 천하를 평정하시는 세계정치의 대원로이십니다.

사회자 : 그럼 세계정치의 대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세계의 절대적권위에 관해 애기해주실까요.

김현규 : **김정일**장군님은 우선 정치경력에서 그 어느 정치연장자도 정치권위자도 따를수 없는 그런 시대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정치원로란 통속적으로 말해서 최고의 정치경력자라 할수 있는데요. 그것은 정치가의 자질과 품격, 공적이 정치연륜에서 시작되기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치가의 정치경력은 정치원로의 얼굴이라 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주석님에 이어 최장의 국정운영경력을 지니신 정치계의 거장이십니다.

사회자 : 네, **김정일**장군님은 40년 가까운 정치경력과 함께 40년 가까운 국정운영경력을 지니고 계시죠.

김현규 : 그렇죠. 그런 다년간의 국정운영경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는 인류사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장군님의 정치경력은 그분의 정치활동이 벌써 오래전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신때부터 국정전반을 포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북의 노동당보 노동신문 주체 84 (1995)년 6월 19일자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게 된 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이 역사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과 당활동, 사회주의건설과 혁명무력건설, 조국통일과 세계혁명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자 : 40년 가까운 정치연륜은 한 정치가의 경력에서 볼때 한평생과 거의 맞먹는 시간이지만 한 민족의 역사에서 볼때는 순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한평생을 바쳐서도 민족번영의 디딤돌 하나 만들기 힘든것이 정치지도자들의 경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기간에 민족사의 새 전성기를 펼치셨는데요. 이북은 새로운 전환과 도약, 새로운 부흥과 건설, 개화의 연대들을 맞이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들어선 주체이북의 역사는 바로 장군님의 국정운영의 역사입니다.

사회자 : 흔히 사람들은 경륜보다 교훈이 더 크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것이 정치가의 경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현규 : 현실적으로 세계정치사에는 이름난 정치경력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치고 정책시행에서의 착오로 곡절을 격지 않은 정치가는 거의 없죠.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풍파속에서도 40년 가까운 동안 한치의 편차나 오차도 없이 정치를 이끄셨습니다. 참으로 장군님은 국정운영에서 새 역사를 창조한 정치계의 거장, 대원로이십니다.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은 특기할 정치경륜도 지니고 계시죠.

김현규 : 그렇죠. 그분께서 벌써 10대초반에 이념소조를 조직하시고 사회정치활동에 나서시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위인들의 이념소조활동을 보면 대체로 20대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28살, 엥겔스는 26살, 그리고 레닌은 25살에 이념써클을 조직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11살 때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고 운영하셨습니다.

사회자 : 장군님께서는 20대에 벌써 민중들로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칭송받으셨죠.



김현규 : 그렇죠. 장군님께서는 20대에 문무를 완전무결하게 겸비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노동자계급의 백년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재평가하신데 기초하시어 주체사상의 지위를 새롭게 밝혀내셨을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정통하시고 주체의 정치경제학과 문화예술론들을 새로 정립하시고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20살안팎의 고대전쟁사에서 현대전에 이르는 전쟁사와 군사들을 독파하시고 명장들의 양병공병술과 전쟁경험과 교훈을 분석하시어 군건설과 전법에 관한 십여편의 담화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세련된 영도예술과 고매한 품격,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리신 업적으로해서 민중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이번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세계적업적에 대해 보실까요.

김현규 : 그러죠. 아시다시피 세계는 이북을 가리켜 사상대국, 정치대국, 경제자립강국, 그리고 문예부흥대국, 무적강국이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격찬은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의 결실이죠. 그분께서 쌓으신 업적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 사례만 좀 들죠. 가장 큰 업적의 하나가 탁월한 선군영도를 펼치시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겁니다.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특징과 그 활력에 관해서는 여러 기회에 많이 얘기드렸습니다. 한마디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조선인민군은 천하제일의 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받음으로해서 정신력에서나 무장장비에서나 기동력과 타격력에서 세계의 무적강군으로 되었고 최고사령관의 명령한마디에 150여만의 ***자들이 나오고 전군, 전민이 총폭탄이 될 각오로 정신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북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조선로동당을 세계의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서도 잘 알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인류사에는 수많은 당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당들이 있습니다만 조선로동당처럼 사상의 일색화가 실현된 당, 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수령의 당, 민중의 신뢰를 받는 노동당과 같은 그런 위대한 당은 없습니다. 세계의 정당단체들이 조선로동당을 따라배우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평양을 비롯해서 이북의 방방곡곡에는 세계적인 대기념비적건축물이 많은데요. 그걸 통해서도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잘 알수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대통령 카터는 이북에 가서 5일동안에 ******** 이북은 아주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립강국인 이북의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계 첫 산업혁명국인 영국이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14년만에 자력으로 공업화를 실현했습니다. 프랑스가 파리를 건설하는데 300년, 포르투칼이 ***하는데 200년, 러시아가 ****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한개도시를 방불케하는 현대적인 거리 창광거리와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각기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일궈세웠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정일**장군님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는 것을 잘 알수 있죠.

사회자 : 그렇죠.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세계적업적에 대해 꼽자면 끝이 없을 것 같군요. 위대한 정치경력과 특기할 정치경륜을 지니시고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휴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어 그 누구도 숨길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이시기에 적대국의 대표들까지도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고 만인이 우러러 경모하고 신뢰하는 것은 나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 세계정치의 원로, 21세기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것은 7천만 겨레에게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민중은 크나큰 자긍심을 갖고 조국통일성업에 더욱 매진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의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9일~10일

헌법개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거론하면서 교과서왜곡으로 주변국들을 심히 모독하고 있는 일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과거는 정당하기 그지없어요≫라고 강변하는 일본. 이번 이따르타스와의 회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본에게 일침을 가하시며 일본과의 관계개선방도를 명백히 하셨는데요. ≪과거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의무≫,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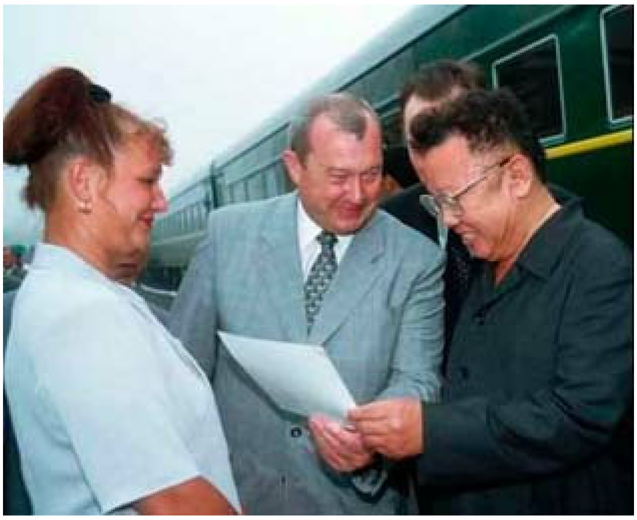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되었습니다만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선 기본은 일본이 지난시기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거청산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수 없는 일본이 진 의무라고 얘기할수 있잖아요.
윤정원 : 그렇죠.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지난시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 준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채 내외에서 커다란 관심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건 전적으로 현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이 오늘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과거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계속 회피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윤정원 : 이번에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 겨레는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거일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죠. 사실 현 일본당국이 진심으로 이북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과거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하는데 적극 임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그렇죠. 죄많은 과거를 그냥 덮어두고서는 이북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윤정원 : 그렇죠.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논할 때 그것은 일찍이 인류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고 국제법상으로도 더 이상 용납할수 없는 잔인한 범죄행위인겁니다. 아시다시피 일제는 식민지통치 45년간만해도 근 20여만명의 우리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해서 황군의 성노예로 만들었고 60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청장년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어다가 마소와 같이 혹사했는가 하면 100여만의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처형하는 인간도륙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수많은 자원과 문화재들을 강탈해서 치부한 죄악들이 논박할수 없는 역사적사실자료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당국은 이에 진심으로되는 사죄와 보상을 할 대신 오히려 얼토당토한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이면서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양심에 대한 모독이고 정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어요.
사회자 : 그러면요. 과거청산이 왜 회피할수 없는 일본이 진 의무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윤정원 : 그건 우선 과거청산문제가 국제법상으로 보나 나라들사이의 관계로 보나 일본이 피해국인 우리 민족앞에 반드시 사죄하고 보상해야할 그런 성격의 법적, 도덕적의무라는데 있다고 봐요. 현 일본당국이 과거일제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건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들사이에도 역시 같다고 봅니다. 범죄를 가한 나라와 민족이 피해를 입은 나라와 민족앞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하는건 국제법상 지녀야할 도덕적의무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이 우리 민족앞에 잔인무도한 엄청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지금까지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은채 계속 회피하고 있는건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북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또한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시대의 흐름으로 봐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초미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럼요. 아시다시피 현시대는 자주와 평화, 협력과 교류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잖아요. 시대의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서 나라들 상호간에도 서로 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런만큼 일본도 역시 이웃인 이북과의 새로운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해 나갈 것을 원한다면 마땅히 잘못된 과거를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과 함께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아직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과거범죄행위를 성근하게 반성하려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를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어요. 과거청산에 대한 일본의 이런 온당치 못한 태도와 입장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회자 : 윤정원선생님,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현 일본당국은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겁니다. 일본이 과거죄행을 깨끗이 청산하고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안한다면 북일관계는 개선될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일본자신을 위해서, 일본국민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로씨야방문의 나날에 있은 일화

길 들여 진 날씨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쏘련을 방문하시였기에 쏘련의 중부지대 특히 씨비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체73(1984)년 경애하는 수령님을 환영하는 크레믈리대궁전의 연회석상에서 한 쏘련내각 수상의 류다른 축배사이다.

이해 봄 씨비리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광활한 대밀림지대와 대초원지대가 메말라 들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력사적인 쏘련방문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신 렬차가 씨비리땅에 들어 섰다.그러자 이상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비는 신통히도 렬차가 도중역에 도착하면 멎었다가 렬차가 떠나면 다시 내리군 하였다.

한주일동안 반복된 신기한 자연현상을 보면서 씨비리사람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씨비리땅에 생명수를 안아 오신 은인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남기신 이 은덕일화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며 년대를 이어 전해 지고 있는 씨비리땅에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남기신 태양일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이에 대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날씨를 길 들이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도착하시기전까지 역구내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가려 볼수 없었다.

그런데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 서자 하싼의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향도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듯 7월의 밝은 태양이 찬연한 빛을 뿌리며 렬차를 맞이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였다. 왜냐하면 6일이 지나서 노보씨비르스크에서도 두번째로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기때문이다.

렬차가 도착하기 10분전까지 도시상공에서는 우뢰가 무섭게 울고 번개가 쳤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듯 무더기비가 쏟아 져 내렸다.

그러나 향도의 태양이 타신 렬차가 역에 들어 서자 자연의 변덕은 갑자기 멎었다. 아마 자연자체도 씨비리땅에 오신 친애하는 동지를 환영하는것 같았다.

옴스크에서도 신기한 현상은 계속되였는데 친애하는 그이께서 도착하시자 사람들을 괴롭히던 비가 갑자기 멎고 하늘이 맑게 개이였으며 태양이 찬란히 빛났다.

하기에 이 지역 인민들은 한주일, 열흘씩 비가 내리던 광활한 씨비리땅에 해빛을 안고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기를 다스리시는 전설적위인으로 높이 칭송하였으며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의 발자취가 어린 씨비리는 영원히 은덕일화, 태양일화를 전해 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뜻밖의 질문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한가지를 보시여도 하나를 생각하시여도 그것을 조선혁명의 리익과 인민생활과 결부시켜 고찰하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령도풍모의 하나이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타빈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는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스몰리느이에서 진행된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장과의 담화과정에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타빈들에 남다른 관심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문득 ≪공장들에서 어떤 타빈들이 생산되고 있는가?≫, ≪회전자의 각도가 45도인 타빈도 생산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시의 행정부대표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통신이 보도한 회전자의 각도가 45도인 타빈에 관한 물음은 열공학분야의 전문가들속에서만 제기될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시고 뜻밖의 질문을 하시였으니 시의 인사들이 놀라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더우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에서 가장 큰 타빈생산기지인 레닌그라드금속공장의 제품들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그들의 경탄은 더욱 컸다.

위대한 장군님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그이께서 조선의 전력공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깊이 느끼였으며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위해 외국의 타빈공장제품들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거듭 탄복하였다.

≪조선의 뿌슈낀≫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스크바로 가시던 도중 뿌슈낀명칭옴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실 무렵 도서관에서는 ≪조선－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전시회개막을 앞두고 도서관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 드릴 일념을 안고 1930년대에 옴스크고리끼사범대학에서 공부한 조선의 유명한 시인인 조기천의 성적증을 찾아 내여 전시회장에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성적증앞에 이르시자 해설원이 조기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면서 그를 ≪조선의 마야꼽스끼≫라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에 해설원의 평가를 바로 잡아 주시면서 조기천은 ≪조선의 뿌슈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해설원의 말은 사실상 실수가 아니였다.

마야꼽스끼와 뿌슈낀은 다같이 로씨야의 이름 있는 시인들이다.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인 마야꼽스끼는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을 창작하여 쏘베트시문학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확립하였다. 그러하였기에 로씨야의 문학계에서는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비롯한 수많은 시들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조선의 혁명적인 시문학 특히 서사시문학발전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한 조기천을 ≪조선의 마야꼽스끼≫로 평가하고 있었던것이다.

하지만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의 공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기천을 ≪조선의 마야꼽스끼≫로만 보지 않으시였다.

그보다도 로씨야에서 사실주의적민족문학의 길을 개척한것으로 하여 로씨야문학의 할아버지로 찬양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문호로 불리우고 있는 뿌슈낀과 같은 지위에 있는 력사적인 인물로 조기천을 추억하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시인 조기천을 ≪조선의 뿌슈낀≫으로 평가하신 말씀에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데 특출한 공헌을 한 그를 시대와 인류앞에 더 높이 내세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 져 있으며 주체적인 혁명문학뿐아니라 인류의 선진적인 문학작품들과 그것들을 창작한 재능 있는 작가들을 존중하시는 그이의 고매한 풍모가 어리여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철한 말씀에서 도서관일군들은 민족성원모두를 한품에 안아 주시고 그들의 재능과 공적을 정확히 평가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게 해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민족애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김정일**동지를 인류문학의 천재로 높이 칭송하였다.

시장의 탄복

평양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수십년만에 싼크뜨－뻬쩨르부르그를 다시 방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 있는 삐스까료브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를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방문록에 ≪우리는 레닌그라드의 비극적인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일** 2001.8.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레닌그라드방위자들에 대하여 회고하시였다.

히틀러파쑈군대의 약 900일간에 걸치는 봉쇄속에서 자기들의 삶의 요람을 지켜 낸 영웅의 도시 싼크뜨－뻬쩨르부르그 시민들이 6년간의 피어린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시여 사회주의와 인류의 자주위업을 결사수호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달랐다.

더우기 그들을 탄복시킨것은 제국주의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 진다고 하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인민의 투쟁력사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에르미따쥬박물관,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를 비롯한 력사유적들도 돌아 보시면서 로씨야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세계력사에 대한 해박한 일가견도 피력하시였다.그리하여 동행한 로씨야의 정계인사들은 물론 ≪미국의 소리방송≫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탄성을 올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면에 박식하시며 대외활동에 능하신것으로 하여 시의 가시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시였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이 도시의 시장 울라지미르 야꼬블레브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야꼬블레브는 **김정일**동지를 매우 문명하고 리지적이시며 오늘의 정세를 환히 통찰하고 계시는 분으로 칭송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생활과 력사, 호상관계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와 나누시였다고 말하였다.

통신은 또한 모스크바로부터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동행하였던 전 쏘련원수 데.떼.야조브도 ≪**김정일**위원장을 정치의 대가이시라고만 하는것은 아마 부족한 표현일것이다.그이는 매우 박식하고 통찰력 있는 국가지도자이시다.≫라고 강조하였다고 전하였다.



분초를 아끼며 보내신 6시간

평양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으로 귀국하시는 도중 8월 17일 원동련방구의 소재지인 하바롭스크시에 체류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고장인 하바롭스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나날로부터 년대를 이어 조쏘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기울여 오신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추억하시였으며 그이의 뜻을 이어 새 세기에도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실 의지를 더욱 굳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바롭스크에 체류하시는 6시간동안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다음 로병회관을 찾으시여 로병들의 건강을 열렬히 축원해 주시였으며 어린이식품종합공장과 백화점을 참관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상품의 가지수와 가격도 알아 보시고 생산기업소들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또한 변강의 지도일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무르강을 유람하시면서 강일대의 범과 곰, 철갑상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였다.이외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통령전권대표부와 향토박물관도 돌아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바롭스크에 체류하시는 이 6시간동안에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적의지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분과 초를 아껴 가시며 열정적으로 사업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니신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로씨야방문의 나날 렬차에서 낮과 밤을 이어 이처럼 집무를 보신 시간만 하여도 무려 400여시간이나 된다.

세계적으로 7월부터 8월이라고 하면 국가지도자들이 휴양지나 관광지로 떠나는것이 하나의 공인된 사실로 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더운 삼복더위에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장장 5만여리에 달하는 로씨야방문의 길을 이어 가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의 나날 어느 한 기회에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혈육들이 있고 사랑하는 조국도 인민도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것을 다 뒤에 두고 이 머나먼 방문의 길에 나서시였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8.15명절날도 렬차에서 보내면 되시겠는가고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할 때에도 렬차에서 명절을 맞으면 뭐라는가고 하시면서 노보씨비르스크에서 하바롭스크로 가는 렬차에서 명절을 보내시였으며 뿌찐대통령과 축전도 교환하시였다.

온 세계가 ≪21세기의 세계사적사변≫, ≪세계를 들었다 놓은 특대사변≫, ≪미국에 대참패를 안긴 승리자의 방문≫으로 높이 찬양하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성과는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의 헌신적인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의 나날에 있은 일화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실록중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외신들이 전한 보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하나하나의 일화들에서 우리는 천하가 우러르는 **김정일**동지의 백과전서적인 위인사의 빛나는 장들을 생동한 화폭으로 다시금 보게 된다.

정견과 신앙, 제도와 언어가 다른 세계의 수십억인류를 격동시키고 만민칭송의 환호성을 높이 울리게 한 **김정일**장군일화들은 세계의 자주화위업과 조로친선협조관계사에 쌓아 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전해 질것이다.

이북과 러시아의 관계와 발전전망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2일~3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중에서 이북과 러시아 두나라 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해 밝혀 주신데 대해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작에서 먼저 이북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밝혀 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북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국경으로하고 있는 이웃나라이며 또 그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친선적인 관계입니다.

일찍이 항일대전의 초창기부터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항일대전 전기간 이것을 실천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두 나라사이의 새로운 친선의 역사적 뿌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세계 파쇼의 주동세력으로 등장한 일본의 반소침략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던 그때 청소한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것을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광활한 만주땅에서 맹렬한 정치군사활동을 벌이시어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저들의 반소침략기도를 짓부셔버리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영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활동에 의해 소련은 후방의 안전을 고수할수 있었으며 모든 힘을 파쇼독일을 격멸하는데 동원, 이용함으로써 2차세계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시기에도 이북민중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소련민중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대오속에서 어깨겯고 함께 나가면서 그들의 사회주의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해 주었습니다.

소련민중도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의 조선해방과 새조국건설투쟁 지원을 비롯해 이북민중의 정의의 위업수행에 지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북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이며 이로부터 이북과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북과 러시아 두 나라 민중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차대한 의의를 가지는 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작에서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있은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평양상봉은 이북과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수반으로써 처음으로 이북을 방문한 것은 이북과 러시아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었으며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일장군님과 푸틴대통령의 상봉은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해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게 했습니다. 수뇌분들께서는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지탄없이 의견을 나누셨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민중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해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이북과 러시아 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셨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북과 러시아의 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채택된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한 역사적인 문건이었습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과 이북과 러시아의 공동선언,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상호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작에서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관계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러 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위한 사회계와 민중들 속에서는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두 나라에서는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북과 러시아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두 나라 정부와 민중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저작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특히 국가지도자들 사이의 대화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 사이, 민중들 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러시아를 방문하시어 푸틴대통령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시라면서 당면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를 두터이하고 이북과 러시아의 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밝혀주신 이북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발전전망에 대해 해설해 드렸는데요.

저작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불면불휴의 정력적활동으로 자주정치의 새로운 역사적인 장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세계평화와 안전은 확고히 담보되고 있는 것이고 인류의 자주위업은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민전 전위들과 각계애국민중은 날로 고양되고 있는 조선민족의 일원으로 된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장군님을 충성으로 모시고 높이 받드는 길에 자신들의 열과 성을 다바쳐야 할 줄 압니다.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관계개선은 이북의 일관한 입장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4일~6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은 우리 민중의 크나큰 감격과 자부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각국 메스컴이 이따르타스의 장군님인터뷰요지를 다투어 싣고 있습니다. 작년 6.15때 느꼈던 장군님의 빼어난 이상이 그냥 그대로 살아숨쉬는 저작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그분의 예지, 불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원칙성과 확고부동한 자주적입장, 크나큰 담력, 넓디넓은 아량, 명백한 논리, 가슴이 후더분해지면서 힘이 솟구치는 말씀들입니다. 장군님에 대한 더욱 뜨거워진 존경과 흠모가 우리 민중의 가슴에 소용돌이치며 높아지죠. 천재적사상이론가, 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중에서 한 대목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김현규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작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간에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관계개선은 이북의 일관한 입장이라는데 대해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이북은 자주권을 상호존중하는 기초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는 200여개를 헤아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와 덜 발전된 나라, 역사적 전통이 오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나라마다의 각이한 정치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나라와 민중은 자기에게 걸맞는 사상과 이념, 정치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누구도 그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국가관계를 수립하려면 매개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주권존중의 원칙에 선다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중은 사상과 이념, 정치제도에 관계없이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수 있으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들사이에 존재한 대결과 분쟁들은 다른 나라와 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데로부터 산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 유린하는건 하나의 큰 죄악으로 됩니다. 더욱이 자주와 평화, 진보의 길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는 오늘, 냉전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자주권의 존중은 건전한 국가관계발전의 기초이며 원칙입니다. 오늘 이북에 있어서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짓부수고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이북은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북은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설사 지난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오늘날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국제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북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이처럼 이북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는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중의 지향과 염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오늘 이북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해와 올들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북과의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관계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을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상이 진행된것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시기 유럽의 자본주의나라들은 이북의 정치제도와 사상을 문제로 삼아 이북과의 관계수립을 외면하거나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에 합류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오늘에 와서 이북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건 자주권을 존중하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해 나가려는 이북의 대외정책의 커다란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권존중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이북의 입장과 태도는 국제무대에서 이북의 발언권과 위상을 더욱 높이고 건전한 국제관계의 수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관계개선에 대한 이북의 일관한 입장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은 일찍부터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성공리에 이끌어주시는 사상이론의 거장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사상에서 제일이시고 영도와 덕망에서 으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우리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걸 다바쳐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일방어체제책동과 그 저의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2일~3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중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의 저의에 관해 밝혀주신데 대해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행정부는 얼마전 세계의 빗발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고 정식발표하고 그 범죄의 길에 공공연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그것이 마치 동맹국들까지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게 하는 한편 이 체제가 대국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것을 강경히 반대하는 유럽동맹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무마시켜보려고 그곳에 특사를 파견한다, 막후교섭을 벌인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근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미국이 이북을 걸고들며 벌이는 미사일방어체제수립문제에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신랄히 분석, 비판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 것으로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사일방어체제의 창설을 발표한 건 과거 동서냉전을 극도로 격화시켰던 레이건의 별세계전쟁계획의 부활로써 세계를 또다시 대결과 군비경쟁의 악몽속에 몰아넣기 위한 새로운 냉전을 공식선포할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방성차관이라는 자는 한 회의에서 또다시 미사일방어체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미사일방어체제는 현재의 군비증진을 조성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미사일방어체제는 단지 미국민들과 자기네 동맹국, 그리고 자기가 배치한 군대를 위협하려는 불량국가들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뿐이라는 누구에게도 통할 수가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나라들로 이북을 포함한 몇나라들을 꼽으면서 북의 미사일위협을 떠들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국이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완전한 무근거한 것이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북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인해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걸 믿을 사람이 과연 어디있겠습니까. 더욱이 미국의 새행정부가 북의 미사일위협에 관해 떠들다 못해 이제는 이북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온 것은 언어도단이고 이북에 대한 또하나의 횡포한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이북의 미사일강령은 순수평화적성격을 띤 것이고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사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북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인 겁니다. 이북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북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요격실험을 거듭한데 이어 이동식 요격체계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펜타곤관리가 밝힌데 따르더라도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 요격미사일들을 전개하는 한편 자기의 군사위성들에 레이저무기를 설치하는 등 미사일방어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의 강한 반발속에서 군비경쟁만을 초래할 미사일방어체제를 급속히 추진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우위와 패권적지위를 차지해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를 미국속의 세계로 만들려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침략적인 군사블록의 확대강화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은 보호우산을 씌워준다는 구실하에 이 체제창설에 유럽나라들은 물론 아시아의 여러나라와 지역을 끌어들여 소요되는 자금과 필요한 군사기지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세력들을 군사블록에 망라시켜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내모는 한편 전략공격무기들을 마음대로 배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략공격무기들의 배비에서 내외의 여론과 국제적인 무기통제 및 군축에 대한 협약들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창설을 구실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인무기들을 세계어디에나 자기 마음대로 전개하려고 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창설을 보호와 방패로 묘사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냉전종식이후 세계는 완화와 군축을 지향하고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엄청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미사일방어체제수립에 광분하는 사실은 미사일방어체제가 방어가 아니라 공격체제이고 어느 한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려는 전략적체제임을 실증해준다 하겠습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저의는 또한 당면해서 아시아를 장악하려는데도 있습니다. 세계는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지배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지역의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과 광활한 시장을 거머쥐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힘으로 유럽을 약화시켜 집어삼키고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유럽이 저들과 힘이 비슷한 세계의 한극으로 되걸 몹시 싫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럽의 기술적능력과 아시아의 지적, 정신적 및 연료능력이 합쳐지게 되면 감당해낼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가 손잡지 못하게 하면서 양자를 다같이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바로 미사일방어체제창설을 공포한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유럽여러나라들을 말로는 동맹국이다, 동반자다 하지만 실지는 그들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기본은 한반도지배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위치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침략의 결정적국면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서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이남에서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도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방어체제창설로 군비경쟁을 선포한 미국의 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저작에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조건에 부닥치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언제나 자주적입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짓밟는 사소한 현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세계를 자기의 손안에 거머쥐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창설을 반대하는 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할줄 믿습니다.

머나먼 5만여리 장정

로씨야공식방문

로동신문 정론 / 주체 90(2000)년 8월 19일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신것과 관련하여 오늘호 ≪로동신문≫은 정론 ≪머나먼 5만여리 장정≫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 조국강산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민족적대환희의 열풍이 불어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 오시였다.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시며 우리 민족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머나먼 5만여리의 장정을 다녀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병사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삼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새 세기의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첫 공식외국방문은 세기와 력사를 드세게 진동시키고 우리 민족과 인류력사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 온 특기할 사변이였다.

태평양연안의 국경마을 하싼에서부터 서북단 싼크뜨-뻬쩨르부르그까지 5만여리에 걸쳐 머나먼 로씨야땅을 오가시며 20여일간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 굳게 이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이 잊지 못한 나날에 로씨야인민들은 높은 존경심과 친근감, 두터운 신뢰의 정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열렬히 맞이하고 성의껏 환대해 주었으며 우리 인민과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

지금도 조선과 로씨야련방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상봉소식과 더불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모스크바선언에 접하던 때의 흥분이 우리에게 뜨겁게 살아 있다.

21세기 세계의 자주화강령, 평화강령과 같은 모스크바선언의 채택발표는 이 지구상에 전 인류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린 세계사적충격이였다.

유구한 국제외교사와 평화를 위한 인류투쟁력사에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이 선언은 세계의 정치흐름을 한손에 거머쥔 력사의 조종자, 자신의 운명을 통채로 인류와 굳게 이어 놓은 위대한 정의의 심장가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희세의 정치외교적성공작이였다.

사회주의승리의 기발높이 세기의 분수령을 넘어 선 걸출한 수령으로서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력사적위인의 령전을 찾은 당당하고 고결한 례의, 레닌의 묘에 쏘련붕괴후 처음으로 정렬된 명예위병대며 절세의 사회주의수호영웅의 명의로 진정된 화환, 붉은광장에 울린 의미심장한 신념의 발자욱소리, 유명한 10월혁명의 고향에 남기신 소중한 추억과 맹세의 숨결...

실로 얼마나 숭엄한 력사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갔는가.

로씨야의 중앙우주비행조종썬터를 돌아 보실 때 거창한 경륜과드

팀 없는 확신으로 안광이 번뜩이던 그이의 모습은 그이께서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세계자주화≪함선≫의 조종간을 틀어 쥐시였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화폭이였다.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세계평화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공동의 협조를 확언한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전례없이 거듭된 상봉이 준 의미는 또 얼마나 웅변적인가.

참으로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백두령장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세계자주화흐름에 크나큰 격파를 일으키고 **김일성**조선의 명예와 위력을 뢰성마냥 지구에 떨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것을 자주화의 거센 바람으로 휘잡아 묻어 버리는 력사적소용돌이였다.

전설적인 영웅서사시로 빛나는 5만여리의 머나먼 장정으로 지구를 들었다 놓으시며 후세에 길이 빛날 거대하고도 풍만한 결실을 안아 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사람들모두가 감격의 눈물, 기쁨의 웃음을 금치 못하며 축하의 꽃바구니와 꽃다발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른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외국방문길에서 돌아 오시는 자기의 수령을 맞으며 그렇듯 크나큰 기쁨과 열광속에 들끓는것인가.

조국강산에 넘치는 인민의 격정과 환희,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위대한 민족적긍지의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보다 존엄과 명예가 더 귀중하듯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집단인 인민에게도 자기 조국과 민족이 남만 못지 않으며 위대하다는 자부가 더없이 귀중하다.

남 다른 사회정치적안목과 감각으로 우리 공화국의 생활을 투시해 본 로씨야의 한 작곡가는 음악을 사랑하는 인민은 생활도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도 바로 조선사람들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 깊은 주장을 력설하였다.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에 의하여 자기 민족의 명성이 유감없이 떨쳐 지고 자기 조국을 향해 만민의 경탄이 집중되는 사변을 체험할 때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끓이게 되는것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땅에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치고 있다.

민족의 제일 긍지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데 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 이것은 사람들을 언제나 고상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민이 그 어떤 고난의 장벽도 주저없이 뚫고 승승장구하게 하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을 뿌리게 한다.

한 인민의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적긍지가 한껏 분출되는 계기들이 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있은 어버이수령님의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 대한 공식방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위도와 경도를 넘어 수십여일간에 걸쳐 엮어 진 6만여리의 그 로정이 세계정치사에 남긴 충격은 얼마나 컸던가.

오늘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공식방문을 두고 그때와 같은 격정과 흥분, 민족적긍지를 다시금 체험하고 있다.

일찌기 인류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시련의 불길속을 헤치고 조국과 사회주의수호업적을 쌓은 조선의 이름으로 거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첫 공식외국방문, 이것으로 하여 우리의 민족적긍지는 오늘 력사상 최고의 높이에로 솟구쳐 오른것이다.

우리의 가슴에 벅차게 어려 온다.

환락과 사치에 병들고 지성과 량심이 제 갈 길 몰라 태질만 하던 세계에 운명전환의 돌풍을 일으키시며 유라시아대륙을 쿵쿵 울려 가신 거인의 발걸음소리, 새 세기 희망의 대문을 장엄한 대외진출로 활짝 열어 제끼시며 인류여, 정의와 신념의 기치 펄펄 날리며 이 길로 달음쳐 가자고 기관차의 기적소리와도 같은 심장의 호소를 터뜨리신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조선의 드센 배짱과 인류자주위업실현의 심원한 뜻을 이따르-따쓰통신사의 질문에 주신 대답으로 엄숙하고도 명쾌하게 선언하시고 그 빛나는 실천으로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위인의 그 모습을 세계가 다 보았고 위인의 그 의지를 세계가 다 들었으며 위인의 그 풍모에 세계가 다 매혹되였다.

그이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자신과 관련한 일체 환영례식을 물리치시였지만 그이 가시는 곳 그 어디에서나 위인숭배, 위인흠모의 열기가 뿜어 져 나왔다.

그 누가 시키거나 조직한것이 없건만 ≪**김정일**동지 만세≫의 웨침소리가 울려 나왔고 이전 초대국시기의 국방상을 비롯하여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회사, 단체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축하하여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였으며 저저마다 언론의 마이크를 빌어 절세의 위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감정을 온넋으로 터치였다.

세계도처에서는 조로친선관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사, 세계평화와 국제적안전보장에 백방으로 기여한 력사적방문이라는 격찬이 그칠새없이 터져 나왔다.

수령이 위대해야 강국이다.

세계력사에는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여 치욕의 나락에서 존엄의 상상봉으로 치달아 오른 민족도 있었고 반대로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인구,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가 참다운 수령의 령도를 잃어 행복과 번영의 언덕에서 가난과 치욕의 늪속으로 깊숙이 빠져 버린 통탄할 비극도 있었다.

이것을 직접 당해 본 유럽의 한 언론인은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의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조선은 정녕 대국이며 **김정일**동지는 그 대국의 수령이시고 세계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보다 새롭게 체험하는 순간의 련속이였다, 조선은 대국이다, 세계정치를 좌우지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대국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력사에는 사대와 굴종, 수치의 흔적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얼룩져 있는가.

당파싸움에 조정이 피로 물들고 자기 우월감,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잃은 봉건적쇄국의 방파제에 부딪쳐 문명의 물결이 좀처럼 스며 들지 못한 이 땅에서 국력이 쇠약해 지고 인민이 무맥해 졌다.

한 나라안에서도 이 대국, 저 대국을 승벽내기로 섬기며 서로 다른 렬강들을 등에 업고 정권탈취의 류혈극을 빚어 낸 봉건사대부들, 그 란리통에 왕국의 대신이 인질로 이국땅에 붙들려 가고 왕비가 섬오랑캐강도들에게 무참히 릉욕 당하고 처형 당하는 치욕도 들써야 했다.

조선은 땅도 작았지만 옳바른 령도자가 없어 더구나 작고 보잘것 없었다.

하여 그 대명사는 ≪약소국≫이였고 그 처지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은 불우한 나라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력사적인 첫 외국공식방문은 수령의 위대함에 민족의 위대함이 따른다는 력사의 심원한 진리를 세상에 보여 준 영웅적장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조국땅에 넘치는 기쁨과 그리움의 폭발, 그것은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장엄한 교향악이다.





지나온 력사에는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이 과시되는 계기들이 많았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와 통쾌한 전승광장, 경축의 불보라 터져 오른 기념일들의 열병 및 시위광장들, 나라에 덮쳐 들었던 최악의 위기를 몰아 낸 고난의 그 나날들에 높이 발휘된 우리의 일심단결은 언제나 군민을 승리에로 부르고 세상을 감동케 했다.

수령이 인민과 조국을 떠나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계실 때야말로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발휘되고 과시되는 력사적계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계시지 않던 기간에 타올랐던 그리움의 불길, 일심단결의 불길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했으며 열렬했던가.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비낀 달을 보면서도 이 땅의 천만군민은 한사람같이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였다.

장군님소식을 기다리는 마음들, 장군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념원들, 장군님께 기쁨 드릴 자각과 결의들을 비껴 안고 꺼질줄 모른 이 나라 집집의 불빛들이며 지샐줄 모른 이 나라 일터와 초소의 밤들, 기상수문국으로 그칠새 없이 걸려 온 로씨야날씨에 대한 문의전화들...

멀리 서북쪽 나라 하늘가를 우러르며 최고사령부에 아침인사를 삼가 드려 온 우리의 일당백초병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의 불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활 지펴 올리면서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 왔고 강성대국건설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동음을 더욱 기운차게 울려 왔다.

쇠돌생산의 동음높이 울린 무산의 철산봉이며 기관차수리와 더 많은 물동량운반으로 달아 오른 철도부문, 염소마리수가 부쩍 늘어난 함흥땅의 염소목장, 나날이 검푸른 독이 오른 황해남도의 새로 정리된 벌들, 수도의 닭공장현대화공사장과 3만세대 살림집지하구조물공사장에서의 혁혁한 성과 등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릴 심장의 인사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국방문나날을 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이자고 과학전선이 들끓었다.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끓어 오른 그리움의 용암은 한 민족의 력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20여일간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보루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 놓았고 조국강산에 거창한 창조와 전변의 격류를 낸았다.

참다운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 그 세월 제 갈래로 뿔뿔이 흩어 진 민족의 처지를 통탄만 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여 고난의 사선천리도 웃으며 어깨 겯고 헤쳐 넘고 승리자의 웃음도 모두가 하나같이 통쾌히 터뜨리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 자기 수령의 외국방문기간을 비상한 충성과 위훈의 나날로 엮어 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비한 나라로 불리우고 있다.

얼마전 외국의 한 신문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방문기간에 조선에서 굽이쳐 흐른 그리움의 대하에 대하여 류다른 주의를 돌려 보도한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어떤 광풍도 핵무기도 무맥케 하는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였다. 사람들이여, 잊지 말자.

오늘이 이 민족적대경사, 인류의 커다란 희망과 환희에 깃든 절세의위인의 거룩한 로고를, 삼복의 무더위와 무더기비, 기나긴 려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민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을 위해 겹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으신채 대륙을 선회하시며 그처럼 헌신분투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동행했던 일군들이 너무도 무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시간차이로 인한 부담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점심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해 못내 나무람하시면서 대폭 줄여 잡으신 짧은 시간안에 서둘러 식사를 끝내신 후 청춘의 정력에 넘쳐 활동을 계속하시였으니 그 가슴 치는 로고의 이야기를 우리 어찌 뜨겁게 새기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는 눈물의 회오리속에 다시금 외워 본다.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이따르-따쓰통신사의 질문에 그이 주신 대답, 수령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랑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신 그 말씀, 온몸을 다 태우며 인민을 사랑하시고 정의를 수호하시는 불세출의 령도자, 자주와 평화의 위대한 영웅이신 그이의 고결한 의지, 뜨거운 숨결을 크레믈리의 성벽이며 우랄의 산맥, 네바강의 물결이며 씨비리의 봇나무숲이 다 간직했으리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개선장군으로 맞이한 우리 인민의 심장은 절세의 위인을 천만년 높이 모셔 갈 숭고한 일념으로 불 타고 있다.

체험은 신념을 만든다.

우리는 이번의 사변적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민족이 강성하고 부흥하는 길, 인류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사는 길이 있음을 더욱 똑똑히 알았다.

선군의 기치우에 백두령장의 위대함이 있고 총대우에 **김일성**조선의 긍지가 빛을 뿌린다.

우리는 오늘의 이 가슴 벅찬 사변을 두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그처럼 힘겨웁고 숨 가쁘던 고난의 진펄속에서 영영 주저 앉아 버렸더라면, 만약 위대한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기치따라 용솟음쳐 일어나 자주적근위병으로 싸우지 못했더라면 백두령장께서 일찌기 룡남산마루에서 선언하신것처럼 주체의 붉은 노을 찬연히 펴져 가는 21세기의 이 아침 하늘가를 바라볼수 있었으랴.

우리자신도 미처 몰랐고 세계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조선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로 기어이 살아 일어나 세계적판도에서 자주와 정의의 거대한 힘을 용용히 뻗치리라는것을...

선군의 기치를 펄펄 휘날리시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구원해 주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긍지를 만방에 떨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은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린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가리라.력사적인 첫 외국공식방문길에 쌓으신 백두령장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토록 빛내여 가리라는것이 오늘 이 땅의 천만군민이 피와 목숨으로 다지는 엄숙한 맹세이다.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 지구를 통채로 준대도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이 긍지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것이다.

력사는 21세기 태양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계자주화를 위한 머나먼 5만여리 장정에 수 놓아 진 불멸의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로씨야방문은 21세기 자주선언을 마련한 력사적사변

조선중앙통신 론평 / 주체 90(2000)년 8월 27일



널리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새 세기 조로친선과 자주위업의 리정표를 마련한 비상하고도 의미심장한 력사적사변이다.이 방문에 의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력사의 장이 펼쳐지게 되였으며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치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두 나라 령도자들의 정치적결단에 의하여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된것이다.

지난해 뿌찐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어 이번 조로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된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며 이에 따라 조로관계가 호상존중과 리해 그리고 친선과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힘 있게 확대발전하고 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것으로 된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류의하면서 국제적안정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조로 두 나라는 우주군사화와 핵군비경쟁을 몰아 오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강력하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이다.

두 나라 령도자들이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것을 강조한것은 우리의 자주적립장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된것이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것을 현지에서 군사적으로 뒤받침하고 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존재때문이다.

6.15북남공동선언에서 조선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조건에서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 있을 명분이란 조금도 없다.

미국은 조선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자기의 의무를 더는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다.

두 나라 령도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것은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경사이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친분관계가 더 두터워 지고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속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 지고 있는것은 조로친선관계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 져 온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에 이룩된 합의의 정신에 따라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세계의 정치원로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24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의 정치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지구촌이 러시아방문을 성공리에 진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끝없는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장 5만여리에 걸치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북러 두 나라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세계정치의 초점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를 외국수반들이 수많이 방문했지만 이번처럼 언론매체들이 광범위하게 보도한적이 없었고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 등 여러나라 수반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어도 외교적테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전의 ******훨씬 초월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으로 언론매체가 들끓었고 지구촌의 연 300억의 민중들이 순간순간을 주시했습니다.

이번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이 세계적으로 초점이 되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이북의 정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가 국제관계의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경애하는 그분의 절세위인상을 다시금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도덕의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체현하신 분이심을 절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행기로 짧은 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하실수 있으셨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실때의 노정을 따라 열차로 러시아를 방문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러시아땅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업적을 역사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뜻이 어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군님께서는 선대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5만여리를 *** 러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우리 민중은 또한 장군님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이심을 절감했습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속에서 사회주의를 재건한다는 나라들도 있고 사회주의정당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국가지도자나 수반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레닌묘를 방문하고 화환을 증정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몸소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화환을 증정하셨습니다. 8월 4일은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수령은 오직 **김정일**장군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다시금 인식한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의 온갖 반동들에 의해 치욕을 당하던 레닌묘가 구세주를 만난 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신 것도 혁명선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최상의 견지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의 집중적 반영으로서 사회주의 ***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민중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크나큰 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사회주의재건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진보적민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대격란이었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해준 쾌거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에서 우리 민중은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외교지략을 지니고 계시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심을 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은 장군님의 러시아방문기간에 러시아에 ***했는가하면 그분의 러시아방문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꾀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러시아에 가시어 푸틴대통령과 마주앉으신 단 몇시간만에 조러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반동들의 훼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역사의 반동들은 이북에 대한 악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북의 국제적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했지만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으로 해서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외교지략의 마땅한 결과에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탁월한 외교술을 지니신 절세의 정치가, 세계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세계정치를 좌우지하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바로 대국입니다.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이북은 정녕 대국이며 **김정일**장군님은 그 대국의 수령이시고 세계의 수령이심을 다시금 입증시켜주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이북의 정치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보여주는 일대시위였다고 봅니다.

우리의 각계애국민중은 세계의 정치원로,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해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리에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한없는 기쁨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새 세기의 첫 8.15광복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으로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를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마련된 조러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깊은 상봉과 회담, 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조러친선관계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새 세기의 첫해 정초부터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8월의 뜨거운 폭양과 전례없는 폭우 속을 헤치시며 수만리 장정의 자욱위에 조러친선의 화원을 꽃피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새 세기를 대표하는 인류의 탁월한 영도자의 위인상을 만민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시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할 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환영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겨레에게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통일조국을 선물로 안겨주실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1세기를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철저한 반제자주적 입장에서 현시대의 정세흐름을 바로 잡아주시었습니다.

주체의 기치 드높이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대한 헌신의 날과 날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에 의하여 주체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위대한 장군님은 불패의 자주정치로 겨레와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어주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영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시며 공장과 농촌, 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던 그 길로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장군님의 인자하신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부디 건강하신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우리 남녘민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라시아대륙을 누벼가시는 그 자욱자욱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을 위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지금 우리 남녘민중은 온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으며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위용과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를 격동시키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여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남민중의 역사적 숙원인 제2의 광복을 기어이 실현하여 7천만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에서 만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겨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은 찬란합니다.

겨레와 인류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실현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각층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8월 19일
서울

지금 러시아에 비가 오는 겁니까?

신조국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9일~10일

창밖에선 주룩주룩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붓는데
뉴스시간, 방송에서 울리는 목소리
≪김정일국방위원장 러시아방문중≫

이게 뭔가?
지금 서울, 경인, 충남 모두 물난리인데
이 호우속에 수만리 면면 장정에 계시다니

서둘러 전화벨을 울린다, 기상청을 찾는다
급하게 내리는 빗줄기처럼 급하게 던지는 말
≪지금 러시아에 비가 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당장 러시아로 관광떠나실건가요?≫
≪웬 말이 많소 -. 그래 어떻다는 거요?≫
≪그 넓은 땅, 어느 지역 말이에요?≫
≪그렇지! 모스크바네! 모스크바! 러시아 또 어디나!≫
≪목마르면 우물 들어 마시겠네, 좀 기다리세요.≫

주룩주룩 창밖에서 비가 내린다
내 마음속의 근심인듯
땅위로 물이 흐른다
머리 속엔 생각이 차넘친다

김정일장군님
지금 이 찬비를 맞으시는 건 아니신지
가시는 그 길에
청청 맑은 하늘 펼쳐져야 하는데

이남민중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분
통일조국 펼쳐주실 민족의 어버이
안녕을 바라는 이 마음
찬비 오니 더욱 뜨거워, 먼길에 계시니 더욱 간절해

좋은 날, 좋은 길만 펼쳐드리고 싶어라
내 마음 푸른 하늘 되고 부드러운 농장되어 -
소원 불타오를 때 걸려오는 전화기종소리
수화기를 맥박치는 내 기쁨의 목소리

≪아하! 아무렴
햇빛을 안고 오시는 태양님이신데
하늘이 몰라볼라고
날씨가 쾌청하다니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장군님만세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9일~20일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풍기고
수려한 산천도 감격에 설레이네
유라시아 만리에 환호가 터져오르고
경향천지 기쁨에 들떠있는 8월

하늘가엔 전파들이 쉬임없이 나르고
지면과 화면마다 앞을 다투어 실는 특보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 역사적인 모스크바상봉≫

전쟁과 도발을 산산히 짓부수며
평화와 행복을 베푸시는 천출위인
그분의 불면불휴의 노고의 자국이 전설로 끝없이 이어져
세인의 충격을 일으키는 위대한 장군

열광, 열광의 순간들이 ***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외에 살건
누구나 받드는 친근한 어버이
그분은 우리 겨레만이 아닌
인류가 받들고 우러르는 만민의 위대한 태양

백두에서 한라까지 칠천만겨레의 목소리 합쳐
그리움에 불타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이름
인류의 태양 김정일장군

아! 내 오늘 온 세상에 소리높이 외치노라
만세! 만세! 만만세!





이인모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접한 한없는 격정을 누를수 없어 삼가 이 축하의 글월을 올립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끊임없는 인민군부대들과 경제 여러 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이어 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길로 러시아를 방문하신다는 보도에 접했을 때 이 전사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이 걱정되어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8월 4일 하루동안에 조러수뇌상봉과 여러 회담들을 거행하신데 이어 역사적인 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하시고 혁명적의리로 뜻 깊은 의례행사들도 진행하시는 등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신 소식에 접하고서야 안도의 숨을 쉬면서 끓어오르는 경의와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친선과 우의의 자국을 남기시며 위대하고 성스러운 활동을 끊임없이 벌리시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루에 한차례의 대외활동을 하셔도 힘겨웁겠는데 여러차례의 중대하고 책임적인 대업을 연속 단신으로 이룩하셨으니 정말 장군님은 정력의 화신이시고 영도의 거장이시며 지칠줄 모르는 출중한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에 바치신 불철주야의 노고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붉은기는 지구상에 영원히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대조선강경정책은 산산이 부숴지고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오늘의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이끌고 계심을 세상사람들은 이번에 더욱 똑똑히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시대는 지금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이 천하제일위인을 모시어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위대하신 장군님의 전사로 여생에 온갖 낙을 다 누리고 있는 저의 가슴은 한없는 민족적자긍심으로 부풀어오릅니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만이 아닌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이십니다.

우리의 하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를수록 장군님의 건강이 더더욱 걱정됩니다.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도 있고 우리의 민족도 있으며 통일된 강성대국도 세계의 자주화위업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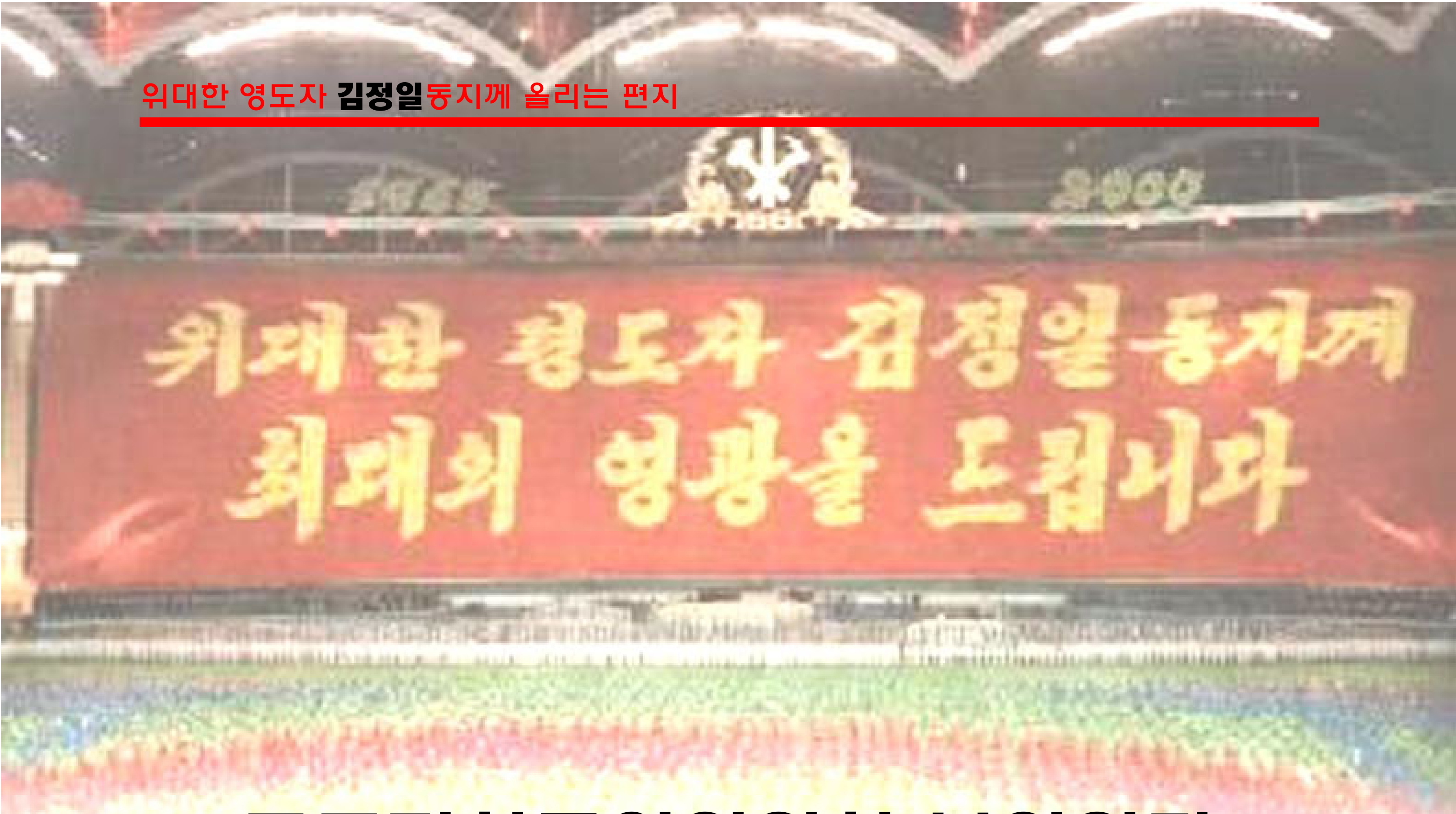
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땅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통일국가를 건설하기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다고 하신 그 뜨거운 말씀을 정말 눈물겹게 받아안고 장군님의 건강을 더욱 안타까이 염려하였습니다.

다 죽었던 이름 없는 이 전사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가 아는 단상에 내세워 주셨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로고에 로고를 바쳐 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

이번에만은 머나먼 장정에서 덧쌓인 피로를 푸시며 푹 휴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중히 건의하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사업에 무리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시옵기를 이 전사는 다시금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90(2001) 년 8월 18일
이인모 올립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오익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영도자님.

영도자님께서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시는 외국방문길에 오르시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장군님을 오매불망 그리며 기다렸습니다.

정말 원로에 위대하고 성스러운 위업을 얼마나 많이 쌓으시고 오셨습니까.

손꼽아 기다리던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맞이하여 온 나라가 환희와 축복으로 들끓고 있는 경사로운 이 시각, 저는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어버이를 직접 뵈옵는 심정으로 위대한 영도자님께 삼가 가장 열렬한 축하의 큰절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러시아방문은 현 세계의 걸출한 영수, 21세기 태양의 위인상을 세인에게 더욱 깊이 새겨 주신 역사적인 대장정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의 양심은 영도자님께로 모아 지고 있으며 지구촌의 어디에서나 영도자님을 격찬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진정 장군님이시야말로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신 세계반제자주화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21세기의 빛나는 태양이십니다.

영도자님께서는 이번에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세계 첫 사회주의국가의 수령이었던 레닌묘를 참배하심으로써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위대한 귀감으로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시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긴 지난 4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영도자님의 인덕과 사랑이야말로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인덕중의 참인덕, 사랑중의 참사랑임을 실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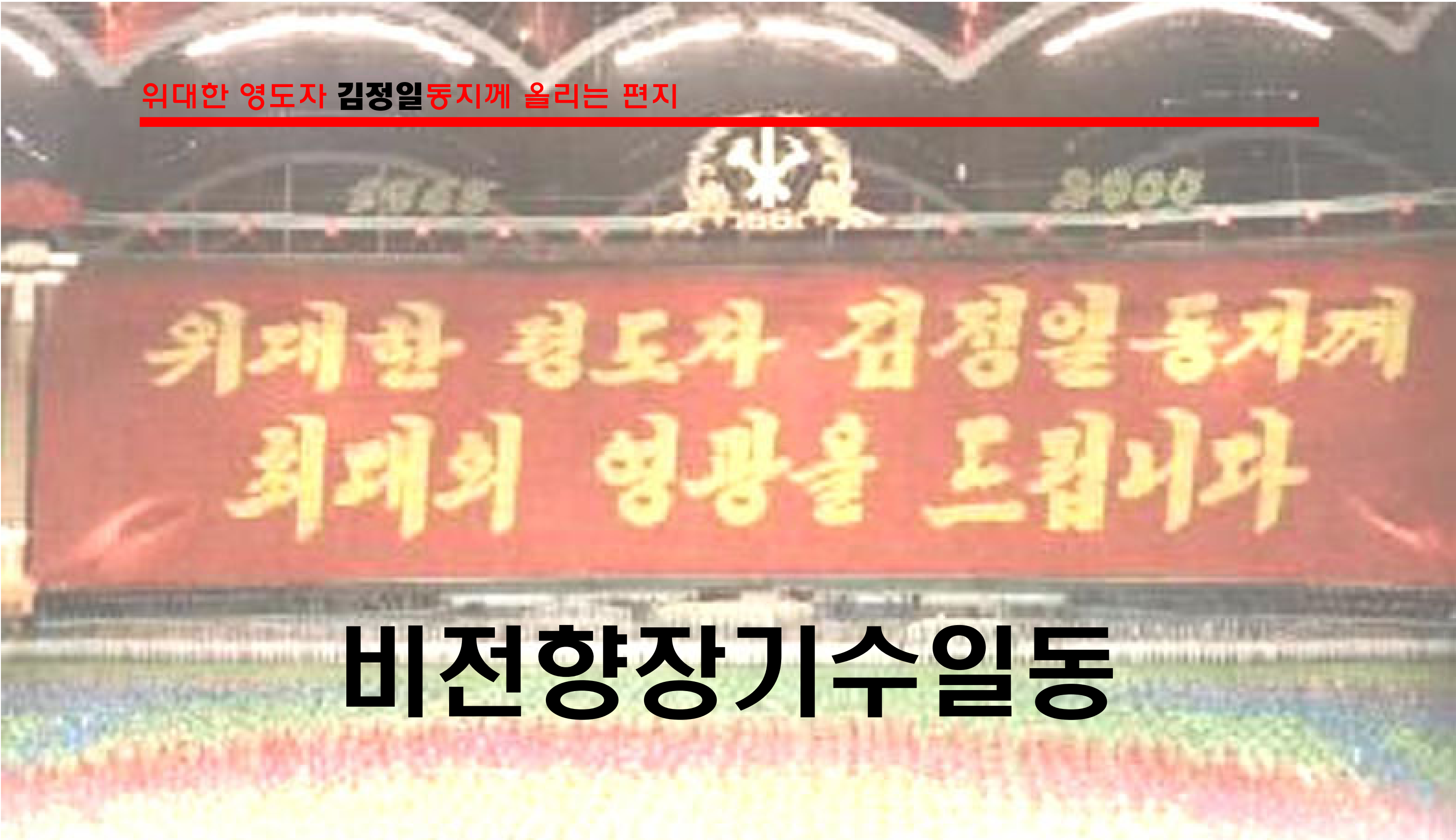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위대성에 강성대국이 있고 조국통일이 있으며 세계자주화가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영도자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는 높은 자긍심을 언제나 가슴 뜨겁게 느끼며 영도자님의 통일전사로 여생을 값있고 보람 있게 바칠것을 다시금 굳게 마음 다집니다.

위대한 영도자님.

부디 원로에 쌓이신 피로를 푸시고 귀체 건강하시어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90(2001)년 8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오익제 올립니다



비전향장기수일동

그리운 위대한 장군님.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러시아연방방문의 멀고 먼 길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에 접한 첫 날부터 어버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장군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장군님의 안녕을 고대하던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시고 역사적인 모스크바선언을 채택발표하셨을 때 정말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축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국제적권위를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의 위인적천품이 만방에 태양처럼 더욱 빛나고 역사가 알지 못하는 선군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행성에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킨 거창한 역사적사변의 나날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맡아 안으시고 이번 방문에서 조러관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었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공헌하시어 시대의 창공 높이 역사의 기념탑을 높이 세우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주와 평등, 평화를 위해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할데 대한 21세기 세계정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세계에 확인시키시어 7천만 겨레의 가슴속에 새로운 ≪**김정일**열풍≫을 일으키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광의 최절정에 올려놓으시고 끝없이 빛내이시는 희세의 걸출한 영장이십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걸출한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고 있으며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의 기둥이시고 삶의 전부이시며 행복의 상징이심을 다시한번 절감하였습니다.

자주시대의 조종간을 잡으시고 역사발전을 향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오늘의 세계정치는 평양을 축으로 움직이고 평양의 정치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으며 장군님의 의지따라 대세는 흐르고 있습니다.

가실때에는 소문없이 조용히 떠나시었으나 오실때에는 민족과 인류에게 하늘같은 선물을 안겨 주신 장군님의 그 불후의 노고와 거룩한 영상을 우러를수록 사무치는 격정에 눈시울만 젖어 듭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이렇듯 하늘높이 빛나고 우리의 국위가 이처럼 세계만방에 떨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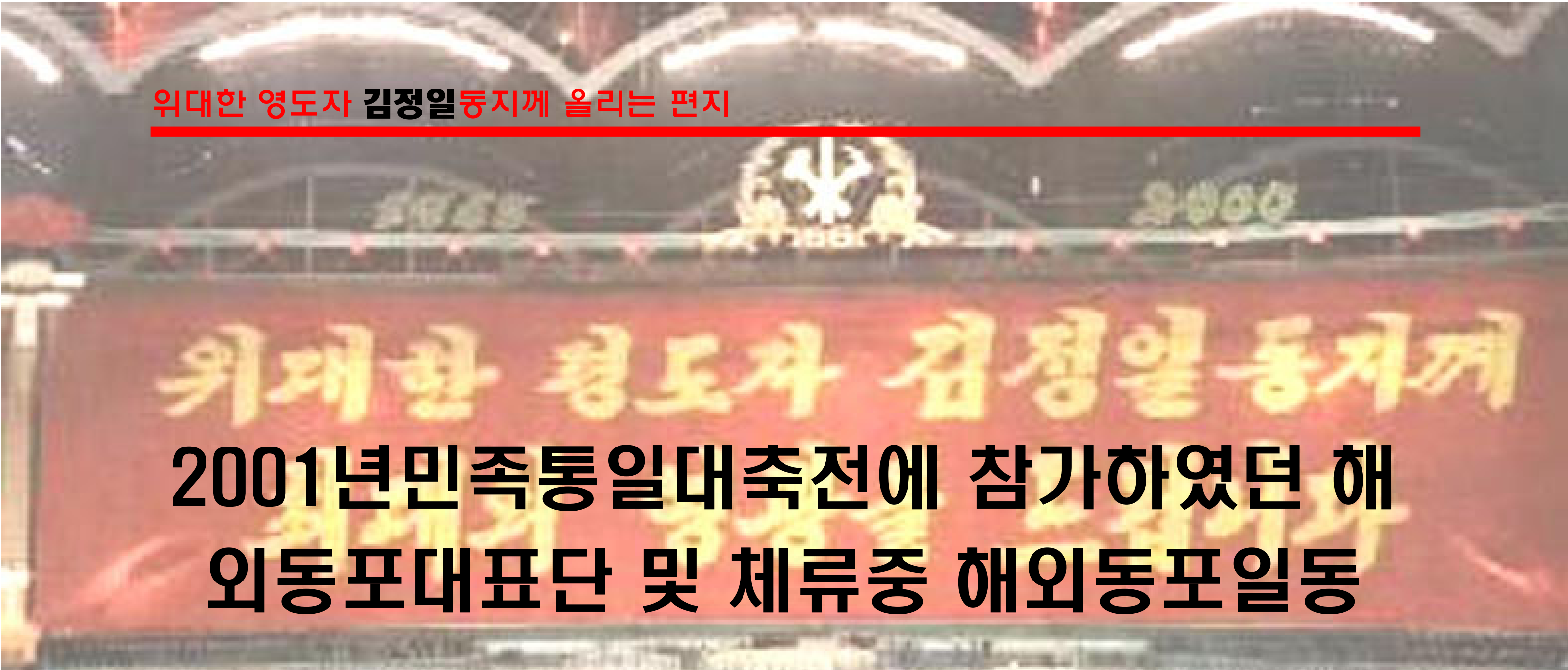
장군님품에 안긴 행복과 영예와 자랑에 끝없이 취하고 장군님 식솔된 자긍심으로 가슴 설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께서 위대하시어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의 앞길이 창창합니다.

저희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통일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영원히 청춘으로 젊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옵니다.

주체 90(2001)년 8월 18일
비전향장기수일동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대표단 및 체류중 해외동포일동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고 달려 가 안기고 싶어 하루가 십년인듯 기다려지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망의 새 세기, 21세기 첫해의 역사적인 러시아연방 공식방문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진감시키시며 세계정치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 돌아오신 감격적인 소식을 조국에서 접한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우리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전체 성원들은 다함 없는 흠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을 담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온 세계를 격동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러시아연방 공식방문은 바람 세찬 이국의 하늘아래서 어머니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사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벅차게 안겨준 민족사에 특기할 일대사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에서 러시아 민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모습과 세계가 장군님의 외국방문 소식으로 온통 끓어 번지는것을 보면서 만민이 칭송하는 위인중의 최고위인을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고 있음을 가슴 뜨겁게 받아 안을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날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민족의 영수를 모시지 못한탓에 나라의 임금이 제 나라, 제 땅에서도 남의 나라 대사관에 찾아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해 보려고 애국지사들이 청하지도 않는 만국평화회의장에 찾아 가 대국들의 냉대와 조소를 받으며 원한의 선혈을 뿌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처럼 열강들의 희생물이 되어 하루아침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반만년 유구한 민족의 자존심마저 다 짓밟힌채 물위에 뜬 부평초마냥 남의 나라 지붕밑에 찾아가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야 했던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고 해외동포들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한세기에 두 제국주의를 쳐부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세계가 우러르는 주체조국의 긍지 높은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이 땅에 한번도 발길이 닿은적 없는 대국의 국가수반과 유럽의 최고위급대표단, 적대국의 수급정객들까지 찾아오게 하시고 년초에 중국을 방문하신데 이어 이번에 또 역사적인 러시아연방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을 태양조국의 위대한 민족으로 빛내어 주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극적인 전환을 보면서 우리들은 영도자가 위대해야 나라가 위대하고 민족의 존엄도 빛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들은 이국땅에서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외국방문노정을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면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고 또 축원하였으며 한시바삐 조국으로 달려와 외국방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는 장군님을 맞이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충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을 안고 조국에 온 우리들은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먼 외국방문의 길을 너무나도 조용히 떠나가신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장군님의 러시아 공식방문을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들끓고 있는 조국민중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영도자와 민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하신 어버이대원수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일편단심 오로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민족의 유일한 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해외교포조직들을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확립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빛내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에 특색 있게 기여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애국애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7천만 우리 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속에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자랑 높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90(2001)년 8월 18일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대표단 및
체류중 해외동포일동 삼가 드립니다

로씨야의 날씨를 문의하여 매일 평균 2만여건의 전화

평양 8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넘쳐 나고 있는 조선의 방방곡곡에 감동적인 사실들이 수많이 펼쳐 지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 진 지난 7월 26일부터 인민들은 기상관측기관들에 그 나라의 기상상태를 알아 보는 전화들을 끊임없이 걸어 오고 있다.

이른 새벽에도 한낮에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때없이 걸려 오는 전화의 수화기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중앙기관 일군들, 전국 각지의 각급 기관 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조선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 등 남녀로소의 절절한 념원이 담긴 목소리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모스크바에 도착하시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소식이 전해 진 지난 4일 밤부터 전화회수는 급격히 많아 졌는데 5일과 6일, 7일에 기상수문국과 각지의 기상관측소들에서 받은 전화를 종합하면 그 회수는 매일 평균 2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걸어 오는 전화들에 그이의 안녕을 바라고 바라는 마음들이 뜨겁게 어리여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방문하시는 로씨야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비가 몇차례나 억수로 쏟아졌는데 로씨야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날씨는 무더운데 그 나라의 기온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 보는 전화들은 해당 기관 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과 그 나라의 시간차이까지 계산해 보면서 비구름상태들을 깐깐히 알아 보고 있다.그리고 기온이 30이상을 기록한 어느 날에는 나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장군님께서 방문하시는 로씨야는 우리 나라보다 더 덥습니까? 비도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라고 물어 왔다고 한다.

지방의 기상관측소들에도 전화를 걸어 오는 사람들이 날을 따라 많아 진다고 기상수문국에 알려 오고 있다.

기상수문국 일군들이 전하는데 의하면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은 그저 어느 기관에서 일한다, 군인이다, 밖에서 비가 내리는것을 보니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전화를 한다, 공중전화소인데 출장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이나 주소, 직위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상수문국 고일훈국장은 ≪기상관측기관들은 원래 대기상태와 그 변화과정을 특징 짓는 기압, 온도, 누기, 바람, 비, 구름, 눈, 서리, 이슬, 해쪼임 등 기상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여 그 자료들을 발표하거나 보관하여 둠으로써 많은 경우 나라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는것으로 인정되여 왔다.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 졌다.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맑은 하늘을 펼쳐 드리고 싶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기상관측기관들에 쏠리고 있다.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의 표시이다.≫라고 감동깊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러시아방문은 잊지못할 사변으로 된다

러시아신문 ≪뜨스몰스까야 쁘라우다≫에 실린 글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 8월 19일~20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8월 4일 수년동안 어느 한 국가지도자의 발길도 닿지 않는 우리 민족을 방문하셨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절세위인의 영상과 한반도전반의 조정문제에 그늘을 던지려는 미제국주의의 시도를 여지없이 폭로분쇄하시어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예외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맑은 아침의 나라를 부정하는 악한들과 주구들에게 반격을 가하시였다.

아직은 젊은 지도자로 불리우는 것이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크렘린궁에서 맞이하면서 그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중히 인사의 말씀을 올린다.

자신의 신념을 민중을 통째로 바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푸틴을 세번이나 굳게 포옹하시였다. 전세계는 숨을 죽이고 TV앞에서 러시아의 현지보도를 **접했다. 모스크바선언에서 ***1972년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 대한 충실성을 확인하였다. 젊은 지도자 푸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계획이 평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대하여 확언하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변에 제국주의자들은 악에 받치겠지만 **. 백악관은 모스크바에서 흘러나오는 우수한 발기들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여 침묵으로 지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가증스러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창설계획에 정확한 타격을 가하셨는데 그것은 사상누각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러시아방문은 잊지 못할 사변으로 된다≫ 이 명제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저작들이 다시금 읽고 싶은 심정이다. 실례로 **김정일**동지께서는 1992년 5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하신 담화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민족과 작은 민족할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긍심과 평등,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시도에 대한 완전무결한 해답으로 된다.



김정일총비서 로씨야방문에 대한 반향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장

(평양 8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장 에비사와 야스히꼬는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자기의 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류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력사의 새 세기, 21세기의 첫해에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신것은 인류력사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뜻 깊은 사변으로 된다.

그이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 발전뿐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 실현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정일총비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을 물리치시며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특히 **김정일**총비서와 웨.웨.뿌찐대통령사이의 뜻 깊은 상봉과 회담,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인류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총비서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안아 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며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께서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총련문예일군대표단 단장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소식에 접한 총련문예일군대표단 단장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김희영부위원장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자기의 소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였다는 보도를 실은 신문을 끝 없는 환희와 감격속에 보았다.

조로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 깊은 상봉과 회담의 성과적진행 그리고 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조로친선관계 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가슴 뜨거워 옴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에 접하여 그이께 다함 없는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세계평화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류가 공인하는것이다.

우리는 진보적인류가 그토록 흠모하고 칭송하며 신뢰하여 마지않는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시고 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풍모, 업적은 세계를 더더욱 크게 경탄시킬것이다.

우리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 로씨야방문소식을 중국신문들이 일제히 보도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공식방문소식을 5일 중국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였다.

≪인민일보≫는 ≪로조가 모스크바선언에 조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로씨야대통령 뿌찐과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 4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진행하시였으며 로조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였다.

보도에 의하면 쌍방은 선언에서 새 세기에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우위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류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안전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조선반도정세에 언급하여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로씨야측은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립장을 설명하였다.

≪베이징일보≫와 ≪해방일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는 사진과 회담하시는 사진을 모시고 모스크바로동자들이 우리 공화국기발을 띄우는 사진과 함께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의 쏘련방문길을 다시 밟으신다≫, ≪조로가 미래에 내을 돌린다≫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공식방문소식을 보도하였다.

≪신화매일전신≫, ≪광명일보≫, ≪해방군보≫도 ≪**김정일**령도자께서 뿌찐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조로수뇌들께서 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였다≫ 등의 제목으로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방문은 세계자주화위업승리의 리정표

각국 인사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신것은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마다가스까르투쟁련합당 총비서 란드리암바우 마후바 자까쑤아막쓰 할바리는 **김정일**각하의 이번 로씨야련방 공식방문과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으며 조선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겐나지 쥬가노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에 조선과 로씨야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실현하는것은 두 나라사이의 전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스트리아공화국 전 사법상인 한스 클레카츠키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신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 방문에서 조로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하신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민족국가들의 자주성을 옹호해 나가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되는 세계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벨리제국적선박 쟈로얄 스타 70쟈호 선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심으로써 조선과 로씨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과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하여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안드리아 벨루난드루 안쎌메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성과는 조로친선관계발전과 정의로운 국제관계수립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수행,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 준 뜻깊은 방문이였다.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김정일**동지의 모스크바방문성과를 통하여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풍모를 따라 배우는 선각자로서의 기쁨과 영예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씨야방문을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평가

로씨야 각계 인사들 축전

(평양 8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의 고위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을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평가하면서 경애하는 그이께 축전을 계속 보내여 오고 있다.

축전들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번 방문이 로씨야와 조선 두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공산주의자동맹≫당 중앙위원회 비서 웨.에쓰.마르꼬브는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을 충심으로부터 열렬히 환영하고 전세계평화와 사회주의, 인류의 자주위업,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이번 방문은 로씨야를 자주의 길로 떠밀어 주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 ≪평화와 오늘≫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김정일**동지와 뿌찐대통령사이의 회담들은 로씨야 조선 두 나라사이의 관계에서 력사적인 리정표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히미쩨흐≫회사 사장 아.게.구드꼬브는 이번 방문은 로조 두 나라사이의 쌍무적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단계로 되며 인민들사이의 신뢰와 호상 리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 ≪스뜨로이마슈인또르그≫대외무역회사 성원일동은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방문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로조 두 나라 령도자들의 상봉은 우리 형제적인민들사이의 호상 협조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게 될것이며 원쑤들의 오만성을 꺾어 버리고 제국주의억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자유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겨 주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 ≪제꼬스≫과학 및 생산상업회사 사장인 국제에네르기통보과학원 후보원사 뻬.뻬.바벤꼬는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고 지적하고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유훈대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길로 인민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의 당 및 국가, 조선인민군의 사업을 령도하시는 기간 조선인민은 조선민족의 전 력사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 인민이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으면 무엇이나 할수 있다는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여 주었다.

그는 로조 최고위급정치상봉이 앞으로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번 방문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을 강화하시기 위한 사업,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하였다.

로씨야 ≪웨쩨란≫신문사 책임주필 아.다닐로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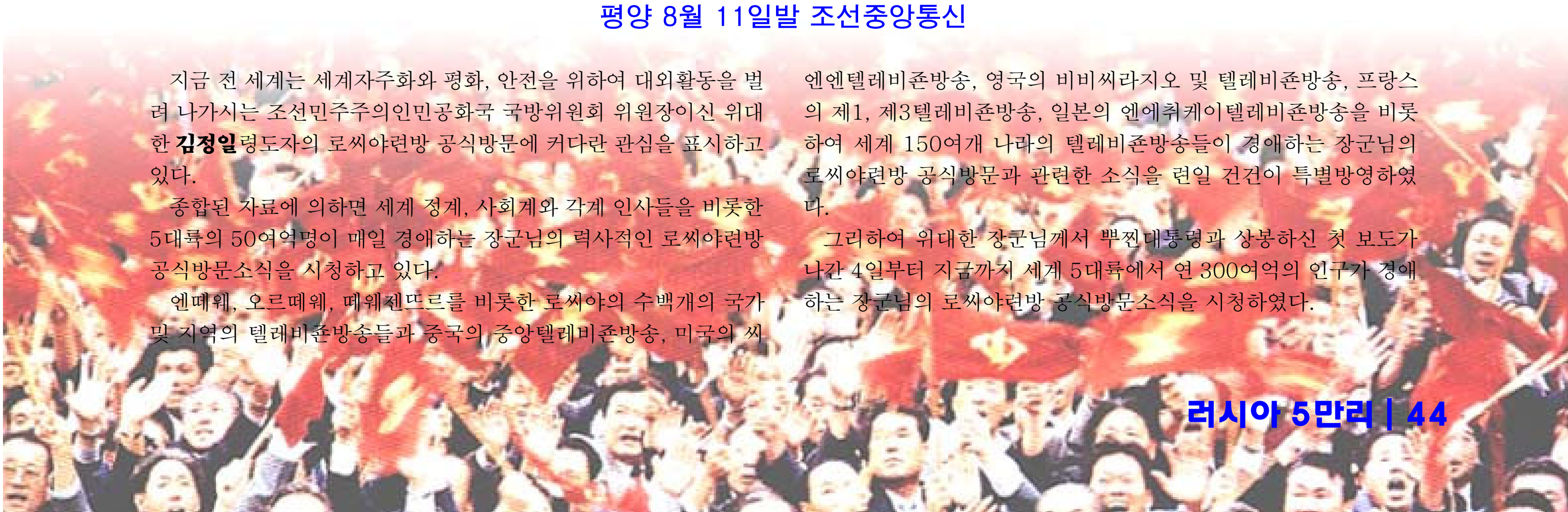
로씨야로병들은 현 시대의 걸출한 정치활동가이시며 평화와 사회주의, 근로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전우이신 **김정일**동지를 충심으로 열렬히 축하한다.

김정일동지의 공식방문과 그리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웨.뿌찐을 비롯한 고위급지도자들 및 로씨야인민들과의 상봉과 회담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형제적관계를 강화하고 세계의 안정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 고귀한 공헌을 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여 위대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조선땅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이룩하시기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영웅적조선인민에게 복리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로씨야방문소식을 150여개 나라 텔레비죤방송들이 보도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 전 세계는 세계자주화와 평화, 안전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벌려 나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정계, 사회계와 각계 인사들을 비롯한 5대륙의 50여억명이 매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소식을 시청하고 있다.

엔떼웨, 오르떼웨, 떼웨첸뜨르를 비롯한 로씨야의 수백개의 국가 및 지역의 텔레비죤방송들과 중국의 중앙텔레비죤방송, 미국의 씨엔엔텔레비죤방송, 영국의 비비씨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프랑스의 제1, 제3텔레비죤방송, 일본의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을 비롯하여 세계 150여개 나라의 텔레비죤방송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과 관련한 소식을 련일 건건이 특별방영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신 첫 보도가 나간 4일부터 지금까지 세계 5대륙에서 연 300여억의 인구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소식을 시청하였다.

로씨야방문 관련담화

≪빠뜨리오뜨≫ 책임주필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과 관련하여 이 나라 신문 ≪빠뜨리오뜨≫ 책임주필 미하일 젬스꼬브가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방문과정에 로조모스크바선언이 두 나라, 두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원만히 채택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이번 방문을 통하여 그이이시야말로 천하제일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은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였다.그것은 이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뿐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은 온 세계를 놀래우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에 앞서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과 방문과정에 채택된 로조모스크바선언을 놓고 세계가 그처럼 떠드는것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 무서워 할것이며 로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보다 두터워 질것이다.

로씨야방문성과를 축하하는 해외동포들의 반향

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 오신데 대한 보도에 접한 해외동포들은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헌신할 열의에 충만되여 있다.

재일조선인대표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은 세계를 격동시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방문은 이역땅에서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준 일대 사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만여리에 달하는 외국방문기간 가시는 곳 마다에서 로씨야의 국가지도간부들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면서, 온 세계가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소식에 접하여 들끓고 있는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더욱 빛난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느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조국은 반만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 날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곡절 많은 운명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난 날 외세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물에 뜬 부평초마냥 정처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던 우리 민족.

그러던 우리 민족이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 찾을수 있었고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으로 우리 조국이 지구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세계정치를 당당히 주도해 나가고 있으니 우리 어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부풀도록 느끼지 않을수 있겠는가.

세계의 이목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외활동에 집중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력사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이의 특출한 위인상에 경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은 21세기에 더욱 강성부흥할것이며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수 있었다.

정녕 **김정일**장군님은 온 세계가 우러르는 희세의 위인이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단장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양영동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으로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시고 오늘은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방문으로 조로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 안전을 위하여 삼복의 무더위와 폭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5만여리에 달하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고 온 세계가 들끓었다.

세계 백수십여개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소식을 광범히 보도하고 있는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세계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를 이끌어 나가실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받들어 모시고 있다.

오늘 세계의 이르는 곳 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칭송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광범히 따라 배 우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의 표시인것이다.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 김용술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씨야련방 방문성과는 세계자주화위업, 인류의 평화위업에 크게 기여하신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으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1세기가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은 세계자주화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고무추동하였다.

하기에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이께 축전들과 다함 없는 흠모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선물들을 삼가 드리였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인류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 금할 수 없다

부산대학생 홍기철

평양방송을 통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계시는 소식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듣게 된 저의 가슴은 지금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으로 한껏 충만돼 있다.

정말이지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온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이신 장군님의 위인상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됐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온 겨레와 전세계에 격동을 불러일으킨 세계사적 사변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새 세기에 들어선 첫날부터 이북의 곳곳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장군님께서 그 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가고 계시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국마다에 새겨지는 불멸의 업적과 노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멀지 않아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다.

나는 앞날의 주인인 청년학생의 한사람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

울산 노동자 유정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국가방문 뉴스를 접하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은 국가수반들의 일반적인 외국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사변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었을 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것이다.

나는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조러모스크바선언을 청취하면서 장군님의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다시금 심장으로 느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 노동자들도 강성부흥하는 통일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아 꼭 온다는 확신이 굳어진다.

장군님의 치하에서 살게 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강철을 다루는 노동자답게 통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억세게 싸워나가겠다.

민족적 긍지 금할 수 없다

광주, 대학생 원효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끓어오르는 격정과 함께 기쁨을 금할 수 없다.

북녘동포들과 더불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오늘인가.

김정일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우리 청년학생들과 민중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은 세계정치, 외교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사변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실로 커다란 기여를 하시고 돌아오셨다.

온 세계가 그분의 러시아방문을 지켜보면서 **김정일**영수님이 시야말로 세상에서 평화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평화의 수호자이심을 다시금 절감했을 것이다.

장군님의 대외활동소식으로 우주의 시공간을 온통 메운 지난 20여일간 정말 위인중의 위인을 영수로 모신 민족적 긍지로 하여 가슴 설레임을 억제할 수 없었다.

본인의 심정이자 우리 청년학우들 모두의 심정이다.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울산, 노동자 김성현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시고 지난 18일 조국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쁨을 금할 수 없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20여일간이나 5만여리의 기나긴 길을 오가시며 조러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로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해 주시었고 올해에는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통해 조국의 자주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셨다.

이번에 우리 노동자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영수, 조국통일의 구성이실 뿐아니라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심을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느꼈다.

정말 절세의 위인이신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민족적 자긍심을 금할 수 없다.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시고 돌아오신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이남노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노동자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에서 살게 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

일편단심 장군님만 믿고 따르겠다

김진호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러시아방문으로 우리 겨레의 가슴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심어주셨다.

참말이지 요즘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사는 보람을 느낀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그분의 러시아방문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감격과 기쁨, 민족적 자긍심을 금할 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외교활동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었고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과 모스크바선언이 방영되는 TV를 보면서 장군님이시야말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위대한 정치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절감했다.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철퇴를 안긴 역사적 사변이다.

세계가 우러러 경모하고 따르는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할 것이다.

나는 일편단심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김정일장군님의 치하에서 살고 싶다

농민 임구용

요즘은 어딜 가나 **김정일**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다.

가정과 직장 어디서나 만민의 환호속에 러시아방문을 성공리에 행하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찬사로 시간가는줄 모른다.

대국인 러시아에서 전례없는 대환영을 받으신 그분의 존귀한 모습을 되새겨볼수록 정말 민족적 자긍심에 저도 모르게 힘이 솟구쳐 아무리 일해도 힘든 줄을 모르겠고 흥겹기만 하다.

나는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들으며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위대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영수를 높이 모셔야 민족이 위대해 지고 흥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세상에 과시했고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었다.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시었다.

장군님의 자주정치는 정말 위대한 정치이다. 어서 빨리 장군님의 치하에서 살고 싶다.

장군님의 정치를 받아야 우리같은 이남 농사꾼들도 목조이는 농가부채와 생활고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잘살 수 있다.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농민을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치하에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남 농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나는 21세기의 태양으로 온 세계의 각광을 받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그분의 치하에서 살게 될 통일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에 헌신하겠다.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업적

김성필 / 구국전선 주체 90, 8월 11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은 지금 우리 민중 뿐 아니라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격정과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주와 정의에로 나아가는 인류의 운명과 21세기 세계정치흐름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

한반도가 끓고 세계가 들썩거린다.

행성위에 존재하는 언론수단들이 일제히 특종뉴스의 포문을 열고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날리고 있다.

우주의 시공간에 꽉 차있는 그분의 모습과 활동보도를 시청하면서 그분은 과시 위대하시구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확신에 넘쳐 예견하신대로 **김정일**장군은 과시 21세기 태양이시구나 하는 자부심이 온 겨레의 심장마다에 쿵쿵 맥박을 두드린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어떤 나라는 대국의 우월감을 내세우고 어떤 민족은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것을 긍지로 여기기도 한다.

하다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세계가, 전인류가 입을 모아 칭송하고 숭배하는 절세의 위인을 영수로 모신 이 세상 더없는 민족적 긍지와 우월감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흔히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은 한나라 민중의 생활에서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화려한 행장을 차리고 수시로 지경을 넘나들며 요란한 연설을 하는 것이 예상사인 국가수반들의 외국방문이지만 내용과 업적이 별로 없기에 그에 대한 반향도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을 지켜보면서 우리 민중과 세계인류는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됐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오로지 인류의 자주위업과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나라의 안정과 통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라는 사실이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그분께서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실현과 강성대국건설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시고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것은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내 나라, 내 민족의 강성부흥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현지지도와 전선시찰로 겹쌓인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무더운 삼복철에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길에 나서시어 불면불휴의 노고의 자국을 새겨가시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그려볼수록 그분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자긍심으로 해서 온 겨레가 격정에 설레이고 있다.

21세기 태양의 모습으로 대륙을 누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우리 민중은 감회깊이 돌이켜 본다.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서 아시아의 동방으로부터 유럽의 중심부에 이르기까지 친선의 유대를 넓혀가며 만민의 환호 속에 6만여리의 기나긴 노정을 이어가시던 그때를.

얼마나 위대한 노정이었고 얼마나 가슴벅찬 격정과 감격의 나날이었던가.

지금도 유럽땅을 뒤흔들고 온 행성에 메아리치던 그 나날의 환호소리가 겨레의 귓전에 쟁쟁히 들려오고 환영의 광장과 연도들에 물결치던 꽃바다가 생생히 어려 온다.

우리 민중은 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그때와 같은 위인숭배의 열기를 실감하고 있으며 세계는 그때와 같은 흥분의 도가니 속에 휩싸여 있다.

오늘 이 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배열기와 경모심으로 밤을 모르는 나라로 되었다.

이북민중과 더불어 낮에 끓던 그리움이 밤에도 끓어번지고 공단과 대학가마다에 그리움의 노래소리가 그칠 줄 모른다. 달빛아래 별빛아래서 그리움의 서사시가 엮어지고 있다.

민족과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하신 민족의 위대한 영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심의 열기가 경향천지에 타번지고 있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있는 것은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고 대행운인 것이다.

자주통일의 길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

김채옥 / 구국전선 주체 90년 9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통하여 자주통일의 길에 빛나는 업적을 쌓으시었다.

영수님께서는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우리 겨레가 나아갈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세워주시었다.

격정과 환희없이는 볼 수 없었던 역사의 그 화폭을 우리 겨레는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보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 러시아방문기간 조러모스크바선언을 채택하시어 자주통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온 세상에 천

명하신 것이다.

모스크바선언에는 두 나라 정상이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민중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측은 우리 나라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언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했다.

또한 선언에는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이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것이 천명되었다.

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통일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하기에 장엄한 뇌성마냥 우주공간으로 울려퍼진 조러모스크바선언의 구절구절은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영수님의 빛나는 업적으로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돌이켜 보면 영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며 조국통일문제를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로 여기시었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었다.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존엄과 번영이 있고 나라의 통일이 있다는 것이 **김정일**영수님의 지론이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의를 외래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시는 영수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로 여기시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해 오시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힌 철리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도 역시 그 주인인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자주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치고 영수님의 탁월한 영도력과 무관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수십년간의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신뢰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되어 이산가족상봉, 비전향장기수북송, 남북간의 각종 회담과 교류, 협력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역사적인 장이 펼쳐지게 된 것도 영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번에 영수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기함으로써 조국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제반 여건을 조성한 것은 자주통일의 길에 쌓으신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그분의 영도를 떠나서는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통일운동을 생각할 수 없고 민족대승으로 마무리될 자주통일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동지, 더 자주 오시라

로씨야신문 글 발표

로씨야신문 ≪자브뜨라≫ 제32호가 ≪**김정일**동지는 통일조선의 령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동지께서 모스크바에 오시였다.그이께서 레닌묘에 진정하신 화환이 지금도 불길처럼 붉게 타고 있다.금장식과 공작돌 및 대리석 장식을 한 화려한 크레믈리의 방들은 조선의 수령을 환영하여 축배를 드는 정치가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뛰여난 전략가이시며 림기응변의 외교술을 지닌 외교활동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의 카우보이(미국서부지역의 기마목동)들과 로씨야≪민주주의자들≫의 가혹한 고립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시였다.

이 자들은 조선의 국경을 봉쇄하고 전투함들이 조선을 목표로 포신을 돌리게 하였을뿐아니라 평양의 하늘에 우주정탐수단을 띄워놓고 조선에 대한 끝 없는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악착한 선전수단들을 총 동원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세례를 받은 마귀할미 비슷한 알브라이트가 조선소년단원들의 인사를 받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던 ≪8개국수뇌자≫들이 ≪조선문제≫를 수뇌자회의에 주요의제로 상정시켰다.

뿌찐이 자기의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도시를 찾아 가듯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지금은 모스크바가 조선의 령도자를 맞이하였다.

무히나의 조각품 ≪로동자와 농민≫의 주인공들이 한결 더 젊어진것 같고 쓰딸린부각상들의 표식물과 장식물들이 꽃으로 활짝 피여 나는것 같다.그런가 하면 ≪제1선≫의 여러 거물급 ≪민주주의제씨들≫은 경풍에 걸린것 같다.

신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북조선의 인민과 당은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권을 그대로 넘겨 드림으로써 정권의 계승성과 주체학설의 순결성을 최고수준에서 보장하였으며 그 어떤 사소한 변태와 후퇴도 모르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다.

주체는 단순한 정치학설이 아니다.그것은 세계의 문명을 적대시하는 온갖 원쑤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과정에 창시된 정치리념이다.

이 학설의 정당성은 조직적이며 락관주의적인 인민이 사는 나라, 훌륭한 도시들과 우주로케트와 미싸일을 만들수 있는 발전된 공업을 가진 주권국가인 북조선이 건재하고 있는 기적적인 현실에 의해 여실히 확증되고 있다.

주체, 이것은 전쟁의 불도가니속에서도 산속에서도 녹지 않는 신기한 수정과 같다.때문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반세기이상 이 나라를 녹여 내려 하였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신문은 조선은 자기의 지정학적지위와 특유한 공업잠재력, 교양있고 조직화된 인민의 근면성을 완전히 리용하려 하고 있다고 쓰고 다음과 같이 끝 맺었다.

김정일동지, 우리는 당신의 모스크바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당신의 인품과 당신의 의상, 당신의 악수가 마음에 든다.

김정일동지, 더 자주 오시라.



로씨야고통련이 환영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27일 모스크바에서 **김정일**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야고통련위원장 리동철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동포조직들의 모임을 중앙과 각 지역조직들에서 진행하는 한편 **김정일**장군님께 방문성과를 축원하는 축전과 편지를 올리며 환영 및 환송행사를 대성황리에 조직진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레닌묘를 방문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4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웨.이.레닌에게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레닌묘를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 께서는 4일 오전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잠시 묵상하시였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무명전사들에게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화환진정이 있은 다음 로씨야군대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환영하여 뿌찐대통령께서 성대한 연회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을 환영하여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은 4일 저녁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김정일위원장께서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께서 연설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연설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크레믈리에 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시였다

(모스크바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5일 크레믈리에 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을 돌아 보시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는 크레믈리에는 각이한 시대상을 보여 주는 건축물들과 많은 력사문화유적들이 보존되여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고색창연한 크레믈리대궁전의 내부와 외부, 여러가지 력사문화유적들이 전시되여 있는 박물관들을 돌아 보시고 귀중한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날 **김정일**령도자께 크레믈리위수사령부에서는 기념품을 드리였다.

로씨야 각계 인사들이 선물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을 축하하여 경애하는 그이께 로씨야 각계 인사들이 선물을 드리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 로씨야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 위원장 이.아.슬루하이, 로씨야전쟁 및 군사복무로병위원회 위원 엘.이.싼니꼬브, 로씨야≪웨제란≫신문사 책임주필 아.다닐로브, 로씨야중앙무력박물관 관장 아.까.니꼬노브, 로씨야 ≪빠르뜨뉴르－1≫회사 총사장 웨.뻬.쥬꼬브와 로씨야≪민족비행기술쎈터≫ 등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선물을 전달하면서 로씨야 각계 인사들은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그이의 이번 로씨야방문은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령도자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불패의 상징이시며 희망의 등대이시라고 칭송하고 전통적인 로조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이께서 이번 로씨야방문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우주과학생산쎈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를 참관



(모스크바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5일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 있는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쎈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를 참관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정부 부수상 이.이.클레바노브와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아.게.까를로브가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로씨야우주항공사 총사장 유.엔.꼬쁘쩨브, 로씨야중앙기계제작과학연구소 소장 엔.뻬.안피노브, 꼬롤료브시장 아.에프.모로젠꼬와 쎈터의 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이 두 쎈터는 우주공학관계부문의 설비제작 및 우주기구조종기지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기업소 총지배인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주요생산공정들과 조종공정들을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씨야의 우주과학발전정도를 보여 주는 쎈터들의 생산과 운영, 연구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나라의 우주공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쎈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쎈터에서는 기념품을 드리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을 환영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이 공연

(모스크바 8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를 위하여 크레믈리대통령악단의 공연이 5일 저녁 크레믈리 대궁전 울라지미르홀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공연은 예술인들의 높은 예술적기교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로씨야련방 공식방문보도 로씨야 보도력사 최고기록 돌파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에 대하여 로씨야의 거의 모든 출판보도물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특별소식으로 전례없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에 대하여 로씨야의 주요 신문, 통신, 방송들이 연 800여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문 ≪빠뜨리오뜨≫는 ≪로씨야에 외국수반들이 수많이 오고 있지만 이번처럼 대중보도수단들이 광범히 보도한적이 없다≫고 전하였다.

이따르－따쓰통신을 비롯한 여러 통신들은 그이의 로씨야방문소식을 근 400회, 엔떼웨, 아에르떼, 떼웨쩨ㄴ뜨르를 비롯한 수백개의 국가 및 지역의 텔레비죤방송들과 라지오방송들은 250여회 보도하였다.

≪자브뜨라≫, ≪빠뜨리오뜨≫, ≪쁘라우다≫, ≪이즈베스찌야≫, ≪몰리야≫, ≪웨쩨란≫, ≪두엘≫, ≪글라스노스찌≫, ≪뜨루드≫, ≪쏘베쯔까야 로씨야≫, ≪레자비씨아야 가제따≫를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이 그이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사진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들은 **김정일**령도자의 대외활동성과들을 전하면서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외교지략, 숭고한 도덕의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뜻 깊은 나날에 피여 난 축원의 꽃들



(평양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방문과 체류의 나날에 중앙식물원에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신비롭게 피여 났다.

이곳에서는 봄날에 피여야 할 꽃들이 마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국방문소식을 알고나 있은듯 봄철에 피지 않고 향기를 아껴 두었다가 빛나는 장정의 날들에 활짝 피여 꽃바다를 이루었는가 하면 한송이, 한송이씩 차례로 피고 지던 꽃들이 한날한시에 약속이나 한듯 피여 나 황홀경을 이루었다.

우리 혁명과 온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력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장장 5만여리의 먼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듯 금수목련들이 봄, 여름내 간직했던 꽃망울을 터치며 피는 철도 아닌 7월 말에 탐스러운 꽃송이들을 피워 올렸다.

조선의 국화 목란꽃도 5, 6월에 이어 8월의 나날에 또다시 피여났다.

오래전부터 봄을 먼저 알리는 꽃으로 알려 진 개나리꽃들이 올봄에 피지 않고 있다가 이 8월에 화려한 꽃바다를 펼쳐 놓았고 상사화들도 이 기간에 무리 져 피여 났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 24일간 2003년 북미간 최종결전 위한 대미국제포위망, 사실상완성

김명철 / 군사외교평론가



7월26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9일간 풍경을 감상한 후 8월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러시아의 고도 쌍트 페테르브르크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고 8일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귀로에 오른 **김정일**은 8월18일 평양에 귀국했다.

24일간의 2만킬로 기차여행동안 **김정일**은 조선민요와 러시아민요도 불렀지만 항상 인터넷에 접속했다.

김정일의 방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중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보도와 외신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2003년 최종 북미결전을 앞두고 북러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관계까지 재구축함으로써 **김정일**이 대미포위망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이번의 방러는 **김정일**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산에 의해 계획, 연출된 고전적인 외교 드라마였다. 1개월 가까이 걸린 이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감독, 연출, 주연은 **김정일**이고 조연은 푸틴이었다. 단역은 러시아군과 치안관계자이고 무대는 광대한 시베리아, 러시아다.

이번 방러는 러시아 국민의 80%, 즉 다섯 명 중 네 명이 구소련 연방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8월16일자 보도)에 이루어져 매우 시기적절한 여행이었다. 록펠러 재단에 의하면, 러시아군수뇌와 러시아정부는 과거 수년간 북한의 대미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한국언론의 취재사진을 보면 러시아각지에서 북한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띈다. 일부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번 방러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당혹해서, 필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흠을 들춰내려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다. 어떤 트집을 잡아도 **김정일**의 방러가 커다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정일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러시아

러시아는 아무리 국가원수라고 해도,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김정일**에게 파격적인 영접를 했다. 그것은 러시아측이 북한최고지도자를 부시나 클린턴, 유럽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통상적으로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길어야 수일, 보통은 하루나 이틀이고 대부분 항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쪽에서는 경호에 대한 부담이 적다. 항공관제와 수도, 일부의 방문지만 경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김정일이 시베리아철도로 왕복 2만킬로를 24일간에 걸쳐서, 북한측이 지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횡단한다고 하면, 러시아 쪽의 경비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일**의 러시아방문 일정동안 기차사용을 받아들여, 막대한 수의 경비병과 저격병을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배치하고, 방문하는 곳마다 엄중한 경계체제를 3주 이상의 긴 방문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측이 **김정일**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은 구소비에트 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영접을 나간 사람은 소비에트시대의 국방장관 야조프 원수였다. 야조프는 소비에트연방유지를 기도하다 진압당했던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러시아는 이 야조프를 전면에 세웠다.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고 러시아가 **김정일**을 환대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욱 극적인 것은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연방과 공산당해체 후, 모스크바의 레닌묘를 방문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방문에 최대의 예의를 다했다. 게다가 **김정일**이 머문 곳은 놀랍게도 크렘린궁전이었다.

러시아 국내에서 ≪지나쳤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푸틴이 전례를 깨트려가며 전대미문의 예의로 **김정일**을 맞이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이유이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다.

첫째, 러시아에게 북한보다 더 강력한 대미견제카드는 없다. 푸틴이 아무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도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카드는 못되고, 미국을 특히 부시정권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클린턴과 회담할 때에도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하물며 일본이나 한국과 경제상의 이유로 관계를 강화해도 러시아의 홍망이 걸려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위망구상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푸틴이 7월에 이탈리아에서 부시와 만났지만 화제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특히 **김정일**을 구소련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형태로 영접할수록 미국은 러시아에 주의를 돌릴 것이며 **김정일**이 머문 3주간 신경을 곤두세워 러시아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대미견제는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 즉 아메리카콤플렉스가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 다시 말하면 북한콤플렉스가 있다. 미국에게 **김정일**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 위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재부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푸틴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일**이 탄 시베리아철도는 달리는 광고탑이 될 것이 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한반도를 잇는 남북의 철도와 연결하는 일은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러시아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뒤떨어진 시베리아개발, 특히 지하자원, 석유, 가스, 삼림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김정일일행의 24일간에 걸친 철도여행은 그야말로 달리는 광고탑이고, 이것만큼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는 없다. 러시아측이 특별한 광고활동을 안 하더라도 시베리아철도가, 시베리아가 전 세계에 3주일 이상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이상의 선전은 없는 것이다. 푸틴이 시베리아철도를 사용한다해도 이만한 화제는 될 수 없다. 그야말로 **김정일**이니까 화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일부 언론기관은 **김정일**의 방러에 맞춰서 시베리아철도특집을 연재했다.

사실상의 북러군사동맹

북러공동선언은 북러관계가 정식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군사동맹 이상으로 밀접한,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대미전략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사동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약에 의한 정식 군사동맹≫이고, 또 하나는 조약은 맺지 않지만 군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한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라도 실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은 현실의 정세를 반영해 대단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북러공동선언 어디에도 군사동맹이나 공동방위라는 말은 없다. 단지 국제연합의 역할강화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정치적 교섭에 의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구축된 군사동맹은 후자에 속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나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러시아 측의 대우는 사실상 북한이 밀접한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북러 공동선언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가 다음의 4가지를 합의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로 된다. 특히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군사동맹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요격미사일금지(ABM)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이고, 양국이 국제안전보장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결의

(2)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평화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게는 위협이 안됨

(3)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

(4) 주한미군문제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상 최우선사항

이것은 북러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 특히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을 탈퇴해서 미사일방위망을 구축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일체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특히 부시정권에 의한 북한의 미사일위협설, 깡패국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야말로,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의 위협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해 7월19일에 평양에서 발표된 양국 지도자에 의한 북러 공동선언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평화적이라는 표현은 작년과 같지만, ≪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를 첨가하고 있다. 지난해 선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협력을 실현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선언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되어 있어 더욱 더 전진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김정일**일행은 장거리로케트제조공장, 최신예전투기제조공장, 전차공장등을 시찰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 새롭게 담겨진 것이 주한미군문제이다. 러시아 주변에는 무수한 미군기지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미군철수는 제기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미군철수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러지도자의 강한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반도는 미군철수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1948년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창건된 이래, 1961년까지 러시아(구소련)과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러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1961년 7월 6일에는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 수립되었지만 다음 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사동맹은 러시아측 특히 푸틴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약에 의한 것보다 더 유효하다.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

이번 방러는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명확해 진다.

첫째, 푸틴의 간곡한 방러요청과 군사동맹관계 수립요청. 러시아는 **김정일**의 방러를 거국적이고 파격적인 대우로 환영했다. 소국이나 약소국이 대국인 러시아에게 군사적 의존, 보호, 동맹관계의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대미대결에 있어서 러시아측이 북한에게 밀접한 공동보조와 군사동맹관계수립을 요청했다.

이것은 북러국교수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러시아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동맹관계를 수립, 더 나아가 **김정일**의 방러를 요청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북한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즉 러시아는 미사일방위망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대결에 있어서 북한, 특히 **김정일**과의 군사동맹수립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시정권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타격. ≪북한은 깡패국가≫라는 설, ≪북한의 미사일위협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가결하다는 북러공동선언은 미국측, 특히 부시정권에게는 틀림없는 정치적 · 외교 · 군사적 타격이 되었다.

미국에게 ≪북한 깡패국가설≫, ≪북한 미사일위협론≫을 부정당하는 것과 주한미군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것은 엠디계획과 대북강경론이 근원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두 개의 주장은 부시가 러시아에 바라는 요격미사일금지조약 파기의 근거로써, 그것을 러시아

가 완전히 일축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안정돼 있는 정치현실과시. 통상적으로 국가수뇌가 자국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1주일이고 그 이상이 되면 국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이른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치 경제체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 수뇌진이 일주일이상이나 해외에 나가있으면 국정이 혼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측으로부터 침략이나 파괴공작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번 **김정일**의 방러를 지켜본 미국정보기관은 **김정일**이 없는 동안에 특별파괴공작원을 북한에 침입시켜서 체제전복을 꾀할 가능성을 온갖 채널을 통해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시사저널 8월 16일자 보도)

김정일은 시베리아풍경을 즐기면서 가끔씩 하차해서는 철도여행을 천천히 만끽했다. 동행한 러시아고관에 의하면 **김정일**은 러시아어가 유창하고 시베리아와 러시아사정에도 정통하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수뇌들은 나라를 3주일 이상이나 비울 여유도 없고, 최고의 사치인 철도여행을 즐기는 일조차 할 수 없다.

철도여행을 하면서도 **김정일**은 기차안에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계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 기차안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서 하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 접속돼 있었다. **김정일**의 해외시찰여행은 끊임없이 발이 땅에 닿아 있다.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는 국외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는 탓일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견디기 힘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 **김정일**. 이번 방러는 **김정일**이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유례가 드문 정치, 외교, 군사 지도자인 것을 말해 주었다. 러시아의 푸틴은 부시, 클린턴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지도자를 러시아로 초대한 적은 있지만 이만큼의 대우를 한 적은 없다.

이번 방러는 푸틴이 대미군사외교전략에 있어서 **김정일**을 단순히 대등한 동맹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스승으로서 삼고의 예(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은 고사)를 다해서 맞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김정일** 방러의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프리코흐스키 극동관내 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는 14일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국가지도자인 표트르(황제18세기 러시아 근대화 지도자)에 비할만한 정치가로, 대단히 뛰어난 진보적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번 방러는 21세기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구축하고 미국에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김정일**밖에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슈퍼 김일성인 것이다.

조미 결전 최종 라운드 2003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 완성

김정일의 방러에 의한 북러군사동맹 재구축은 북미결전 최종 라운드인 2003년을 앞두고 대미국제포위망이 사실상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최초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정비할 예정을 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단독으로 2003년 조미 최종전에서 무혈승리를 거두고 만에 하나 전면전쟁, 핵전쟁이 되어도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일**의 군사 우선정책은 절대적인 효과를 내어 페리보고서를 끌어냈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미 동맹국은 ≪북한은 깡패국가≫라고 떠드는 미정부의 북한고립화 정책과 결별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서방국가는 부시정권의 대북한 강경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작년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김정일**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13일~15일, 마침내 평양에서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고 15일 남북공동선언이 나와 남북의 자주적 통일이 합의됐다. **김정일**은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수뇌와 북중군사동맹이라는 피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강화했다.

올 9월에는 장쩌민주석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용군 조선전쟁참전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통적 북중 동맹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돌아보면 한국전쟁 이후 네 차례의 북미군사대결이 있었다. 1968년 스파이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EC-121 정탐기격추사건, 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1993년~94년 핵 대결. 그 때마다 어느 나라도 북한에 지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단독으로 세계의 초강대국, 미국과의 무력 대결에 임해 전면전쟁, 핵전쟁을 불사하는 강경책을 폈다. 결국 그 때마다 미국이 물러났고 북한은 무혈승리를 달성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단독대결이 북한경제와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준 것도 사실이다.

작년 초부터 국제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더 이상 북한은 대미대결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단독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 올리면서 국제적인 대미포위망도 완성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부시정권이다.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북미 대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극적으로 유리해진 상황 속에 **김정일**은 제네바 핵합의 최종기한인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2003년까지 약속한 경수로 2기를 북한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정부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경수로공사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미 미국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공사를 해도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2003년이 되면 부시정권은 세계의 면전에서 북한으로부터 격렬히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를 포기하고 동결돼 있던 핵 발전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을 재개할 것이다. 북한이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은 두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유인우주비행실험까지 할 가능성마저 있다. 2003년 제네바합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부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네바합의를 아예 무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실험을 묵인한다.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이 용인할 수 없고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해지고 일본 국내에는 반미기운이 높아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정부는 공공연히 혹은 비밀로 핵무장을 결단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핵무장을 결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확산이 야기되고, 반면 핵무기로 세계를 재패했던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굴러 떨어져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악몽의 사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을 상대로 선제군사공격을 한다.

이는 북한과 전면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네바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일으키기에는 국제적으로 대의명분이 없다. 미국은 대의명분이 없어도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나라인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라크나 유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전멸뿐 아니라, 미군의 대북한 군사행동에 협력하는 나라들이 보복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본토 특히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이 북한 미사일에 의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지원이 없더라도 북한은 단독으로 미국과 핵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보다 북한이 핵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본토 도심은 핵공격에 대한 방위체제가 일체 없다. 초보적인 엠디체제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그것도 2004년 이후가 된다.

또 미국의 대북한군사행동을 유럽,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전세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선택도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된다. 위에 말한 두 가지의 선택으로는 부시의 재선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진다.

부시진영은 이미 재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걸프전쟁으로 부친도 재선하지 못했다. 개구리의 자식은 개구리가 된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반침하 혹은 본토가 불타오르는 것이 현실이 된다.

세 번째, 제네바합의를 이행하고 북한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미국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나라라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인간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에 저항하는 상대, 특히 강렬한 반격, 보복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 정치적인 해결을 선택한다.

이 경우 미국이 받아들일 것은 북미적대관계의 해소, 즉 북미평화협상조인, 주한미군철수, 북미국교수립, 제재조치의 전면해소, 테러국가리스트에서 북한해제,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지출이 요구된다.

이런 조치는 의회의 승인, 비승인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확산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잔류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부시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부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켰다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재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부시에게는 이것 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만일 부시가 북한과 군사대결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파멸을 의미한다. 군사적 대결은 **김정일**이, 북한이 제일 자신있는 분야다. **김정일**은 항일무장전쟁의 전화속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는 맹렬한 화염 속에서 성장했고, 그 후 미국과의 군사대결 속에서 세계 초일급의 군사지도자, 정치지도자가 되었다.

군사력 강화, 경제재생의 순풍

이번 방문으로 북러양국은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합의했으나 이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특히 경제재생의 순풍이 될 것이다. 북러공동선언에서 러시아는 양국간에 건설한 산업시설, 특히 전력시설의 재건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원래 북한의 산업시설은 러시아기술에 의한 것이 많다.

북한의 전력생산과 공급시스템의 중핵은 평양화력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이다. 이 두 곳은 제1차 7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위기 이후 러시아는 협력을 중단하고 부품 등의 공급을 거부했다.

유럽 등으로부터 상품조달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규격이 맞지 않고, 맞는 경우에도 조건이 붙어 매우 비쌌다. 하지만 북러합의 이후 커다란 자본도입 없이도 러시아로부터 일부부품 등의 공급이 재개된다면 북한전력사정은 크게 호전된다. 전력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북한 경제는 재생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또 그 밖의 생산시설이나 공장도 가동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없어도 이미 북한 경제는 부활기조에 있고 몇 년 안에 극적인 재생을 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순풍이 불어 북한의 경제재건은 가속화될 것이다.

군사분야도 마찬가지다. 전투기 등은 대부분이 러시아제인 데다가 부품부족, 연료부족상태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북러회담은 이것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로 본다면 북한과의 경제, 군사분야 협력이 별것 아니지만,대미 전략상 이것만큼 유효한 대책은 없다. 다시 말해 러시아 자신이 병력이나 군비를 확대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러시아 자신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 보다 수백배의 군사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후 수년 사이에 북한경제는 완전히 재건되고 부활해, 1인당 국민소득도 1991년의 2500달러 수준으로 돌아간다. 10년 내에는 8천달러 이상으로도 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또 1만달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근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유럽과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순풍이 된다. △2003년까지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된다 △여분의 국방비는 전부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다 △북미적대관계 해소에 의해 해외로부터 투자가 본격화된다 △석유개발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본격화되어 북한은 산유국이 된다 △이후 5년 이내에 남북이 연방제를 달성한다.

만일 북한이 산유국으로 떠오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3만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도 자신 편으로 만들어 미국을 무혈무력화시켜 남북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북한의 경제도, 국민 생활도 극적으로 향상될 때이다.

이번 방러 24일간은 2003년 북미 최종 결전에 대비한 대미포위망완성을 의미한다. 이후 2년 4개월 이내에 북미교섭은 평화적으로 일괄타결될 것이다. 미국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남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도에 의해 연방제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통일의 최대의 장애였던 미군, 미국이라는 요인이 무력화될 때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된다. 미국이 무력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남북한은 쉽게 연방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여름 밤의 꿈이 아니다. 몇 년 이내에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현실인 것이다.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을 맞이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53돌을 맞이하며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세기 공화국이 인류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며 백전백승하여 왔다면 오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역사의 기적을 거듭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한편 전 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민중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주자립의 사회주의모범국가로 발전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구축하시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한편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민중이 주인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건국위업은 조국청사와 인류혁명사에 영원무궁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충효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한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완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후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노숙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적 건국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한편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시며 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차고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세계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시며 포위환국면을 역포위환국면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신묘한 전략으로 인하여 오늘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갈수록 고립되는 반면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온 지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적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는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며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으로 빛나는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영구분단음모와 세계제패전략에 피눈이 된 미제국주의에게 가장 정확하고 심대한 정치사상적 타격으로 되는 반면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는 통일강성대국건설과 전세계자주화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역사의 좌표, 필승의 보검으로 됩니다.

지금 진보적 인류는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장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고 새세기 자주화대강을 밝혀주시는 한편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레닌의 영전을 찾아 쏘련붕괴 후 처음으로 정렬된 명예위병대의 호위아래 화환을 진정하신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한 도덕의리에 눈시울을 적시며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자주의 궤도따라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은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어머니조국이며 진보적 인류가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주체사회주의조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 속에는 조국통일도 세계변혁도 다 맡아 나서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며 민중중심 민중복락의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수수천년 꿈꾸어오던 지상낙원이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을 바라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사업에 통일혁명의 지름길이 있고 최대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위대성선전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한편 당면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을 반미반이회창투쟁에 총분기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소망이며 최대염원입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며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